



# 글로벌 시·상·과 한국 경제

-중등편-

# GLOBAL



기획재정부

**KDI**

경제정보센터

Korea Economic Information Center



경제교육 표준교재 교사용 지도서

# 글로벌 시장과 한국경제

- 중등 -



# 일러두기

선생님들께서 본 교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경제교육 표준교재는 차시별로 선별적 활용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상황 및 목적에 따라 차시를 분리해서 활용하거나 학생들에게 과제물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업 진행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은 '선생님 잠깐만'으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은 'Tip!!'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멀티미디어 자료 및 참고 자료는 적절한 자료로 대체 하셔도 됩니다. 읽기 자료는 개념 정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이므로, 글의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여부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신문기사는 차시별로 유용한 샘플을 선별한 것으로 해당 언론사와 저작권 협의를 마친 자료입니다. 경우에 따라 전문이 아닌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업체명은 활용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해당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6. 이 교재의 전체 파일과 멀티미디어 자료 파일은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eiec.kdi.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목차

<b>1차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라구요? .....</b>	<b>1</b>
1.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 있는 국산품! .....	2
2. 글로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	4
3. 글로벌 시장에서 희망상품 거래하기: 세계무역게임 .....	6
4. GLOBAL in COREA! .....	14
<b>2차시. 교환을 했더니 이익이 더 발생했어요! .....</b>	<b>19</b>
1. 박인비 선수는 직접 골프용품 수리를 해야 할까? .....	22
2. 만들고 교환하고! .....	24
3. 마무리 초성퀴즈 .....	39
<b>3차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무엇이 좋을까 ..</b>	<b>49</b>
1. 상품은 같은데 가격이 달라요! .....	52
2.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나라 찾아보기 .....	53
3. FTA 체결하니 관세율이 떨어지네! .....	58
4. FTA로 달라진 우리 생활 .....	63
<b>4차시. 환율 변동으로 울고 웃는 사람 .....</b>	<b>69</b>
1. 세계의 각 나라는 사용하는 돈이 달라요 .....	72
2. 여러 나라로 나누자! 우리 모듬은 어느 나라지? .....	76
3.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이야기 게임 .....	79
4. 환율 변동으로 울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	87
<b>5차시. 가발 수출국에서 반도체 수출국으로! .....</b>	<b>97</b>
1.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	100
2. 가발에서 반도체로! .....	103
3. 경제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하다 .....	107
4. 한국 경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	111





---

중등 1차시

#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라구요?





## □ 학습목표

- 글로벌 시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 □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게임 자료, 멀티미디어 환경(컴퓨터, 빔프로젝터/모니터, 스피커)  
동영상 자료, 기사 자료

## □ 수업내용 구성

주요개념	글로벌 경제		
교육단계	지도 방식	지도 내용	유의점 · 준비물
도입 (5분)	NIE (신문활용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도에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면과 매출액이 가장 높은 라면 업체 질문</li> <li>•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을 소개한 신문 자료를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자료]</li> </ul>
전개 (30분)	활동 1 빙고게임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인 1모둠으로 구성</li> <li>• 빙고카드 1매씩 배부</li> <li>• 25개의 칸에 나라이름을 기록</li> <li>• 빙고 게임 실시</li> <li>• 5줄을 완성하는 순서대로 1~4위를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1-1]</li> </ul>
	활동 2 세계 무역 보드게임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활동 1 결과로 순위 결정</li> <li>• 4개국 중 1개국을 선택</li> <li>• 주사위를 굴려 게임을 진행</li> <li>• 게임 후 수익과 지출을 종합해 순위를 결정</li> <li>• 순수익이 가장 높은 사람을 최종 우승자로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자료]</li> <li>• 게임 요령을 PPT로 게시하고 경상수지표 작성 예시를 보여 줄 필요가 있음</li> </ul>
정리 (5분)	동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lobal in Core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자료]</li> </ul>

## [도입]

#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 있는 국산품!

### 준비하기

- [도입]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1: [외국서 더 알아준 '팔도 도시락' 기사 자료
  - 멀티미디어 환경 구축

### 수업 진행하기

- 1) 학생들에게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 2) 학생들이 답을 하고 나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은 '신라면'이라고 답변해 주고,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의 이름은 바로 공개하지 않고, 우리나라 라면이라는 힌트만 제시합니다.

	러시아	한국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팔도	농심
히트 상품	도시락	신라면

- 3)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난 후, [외국서 더 알아준 '팔도 도시락'] 기사를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 기사문 내용: 외국서 더 알아준 '팔도 도시락' 라면

**Tip!!** 멀티미디어 활용이 어려운 경우 자료를 출력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 4) 기사문을 읽고, 팔도 도시락이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비결을 탐구하고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 도시락 라면의 특징은 ‘네모난 용기’에 있음을 알려주세요.
  - 러시아의 자연 환경(넓은 영토, 냉대기후)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국토가 넓어 여행할 때 배낭 속에 넣는 네모 모양의 컵라면 용기는 원형 컵라면에 비해 파손이 덜 되어 보관이 용이하고 이동이 편리합니다.
    - 냉대기후 지역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아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도 도시락 라면 용기는, 대형 사각 용기로 화분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 5) ‘팔도 도시락’의 사례에서 경제 활동의 범위가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개념을 통해 학습 활동에 대해 안내해 주세요.
- 글로벌 경제란 국가 간의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제 활동이 국내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를 말합니다.

### 자료1: [외국서 더 알아준 ‘팔도 도시락’]

#### 외국서 더 알아준 ‘팔도 도시락’ 라면

1986년 출시된 팔도의 간판 컵라면 도시락이 30년 만에 누적 판매량 50억 개를 돌파했다. 금액으로는 2조1,000억 원 규모다. 86년 출시 당시 도시락은 작은 컵이나 사발 형태의 용기가 대부분이던 컵라면 시장에서 대형 사각 형태의 컵라면을 내놔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 30년간 도시락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렸다. 30년간 국내에서는 3000억 원어치 팔렸지만, 해외 판매는 그 6배인 1조8,000억 원이나 됐다. 팔도 도시락은 미국·캐나다·몽골 등 해외 30여 개국에서 약 44억 개가 판매됐다. 지난해 판매량은 국내 600만 개, 해외 3억2,000만 개다. 특히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는 연간 3억 개의 러시아판 팔도 도시락(사진)이 생산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유럽 지역 14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현택 기자  
『중앙일보』 2016년 4월 22일자

## [전개] 활동 1

# 글로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 준비하기

- [전개] 활동 1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2: [학생용 활동지 1-1] × 학생수
- 4인 1모듬으로 편성해주세요.

**Tip!!** 흥미 유발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듬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 수업 진행하기

- 1) 선생님은 한 모듬에 한 장씩 빙고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 2) 선생님은 ‘글로벌 경제활동에 참여한 25개국’을 주제로 제시하고 아래의 요령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게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게임 요령>

1. 다음 주제에 맞는 나라를 빙고카드에 쓰세요.
  - 카드 주제 : 글로벌 경제활동에 참여한 25개국
  - 예시: 대만,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오만, 이스라엘,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알제리, 콩고, 남아공,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 일본, 아이티, 크로아티아
2. 1번 모듬원부터 4번 모듬원까지 나라 이름을 말할 순서를 정합니다.
3. 각 모듬원은 순서대로 나라 이름을 말하고, 모듬원들은 해당하는 나라가 있으면 빙고카드에 ○표시를 합니다.
4.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표시가 5개 생기면 한 줄이 완성됩니다.
5.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 줄을 먼저 완성한 사람은 ‘빙고’를 외칩니다.
6. 빙고를 외친 순서대로 1등부터 4등까지 순위를 정합니다.

## 자료2: [학생용 활동지 1-1] 글로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나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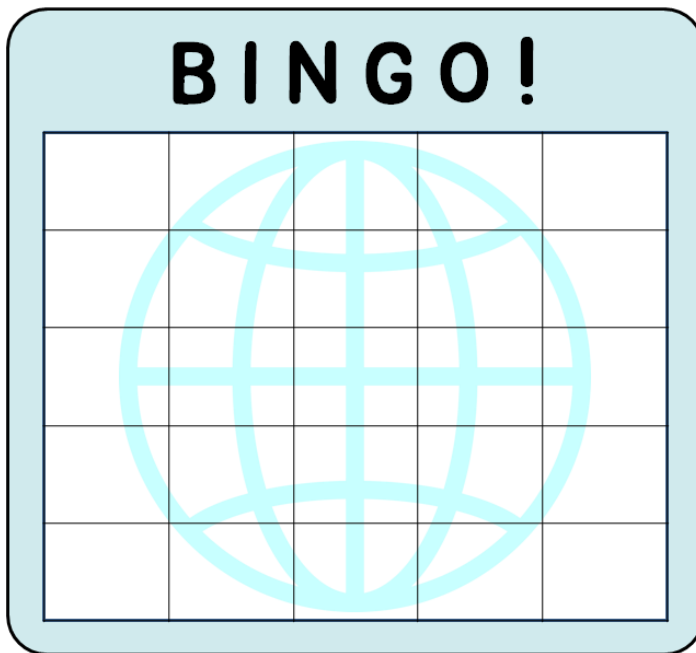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에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식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아래에 빙고카드가 있습니다. 다음 요령을 참고하여 빙고 게임을 해보세요.

### < 게임 요령 >

1. 다음 주제에 맞는 나라를 빙고카드에 쓰세요.

카드 주제 : 글로벌 경제활동에 참여한 25개 국

2. 1번 모둠원부터 4번 모둠원까지 나라 이름을 말할 순서를 정합니다.
3. 각 모둠원은 순서대로 나라 이름을 말하고, 모둠원들은 해당하는 나라가 있으면 빙고카드에 ○표시를 합니다.
4.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표시가 5개 생기면 한 줄이 완성됩니다.
5.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 줄을 먼저 완성한 사람은 '빙고'를 외칩니다.
6. 빙고를 외친 순서대로 1등부터 4등까지 순위를 정합니다.



## 글로벌 시장에서 희망상품 거래하기: 세계무역게임

### 준비하기

- [전개] 활동 2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3: [학생용 활동지 1-2] × 학생수
  - 자료4: [국가 카드 세트] × 모둠수
  - 자료5: [게임 요령] × 모둠수
  - 자료6: [주사위] × 모둠수
  - 자료7: [게임 판] × 모둠수

**Tip!!** 게임 판의 25개국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선정한 국가들입니다.

**Tip!!**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게임 도구들을 미리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 수업 진행하기

- 1) 선생님은 [학생용 활동지 1-2]를 한 장씩 나누어 줍니다
- 2) 학생은 [활동 1]의 순위 결과에 따라 모둠 내에서 아래 국가 중에서 한 국가를 선택합니다.
  - 모둠 내 학생 4명이 각자 한 나라씩 선택하도록 합니다.


**Tip!!** 주요 수출품 두 가지를 참고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나라	주요 수출품
독일	자동차, 의류
한국	휴대폰, 자동차
브라질	철광석, 사탕수수
호주	철광석, 밀

3) 게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이동합니다. 대만이 첫 번째 칸, 중국이 두 번째, 이란이 여섯 번째입니다.
  - 주사위를 던져 '6'이 나오면 '이란'으로 이동하세요.
- 이동한 지역의 무역 정보를 토대로 [학생용 활동지 1-2]를 작성합니다.
- 모든 사람이 마지막 국가를 통과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쳐 합계를 산출합니다. 수출은 (+)로, 수입은 (-)로 계산합니다.
  - 예) 수출 250억 달러, 수입 340억 달러일 경우 수입이 90억 달러 더 큽니다.
- 수입액이 적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합니다. 만약 수입 50억 달러, 수입 30억 달러, 수입 20억 달러, 수입 100억 달러로 게임이 종료된 경우 수입액이 가장 적은 사람이 이깁니다.
- [게임 판]에서 해외투자는 선택입니다. 해외투자를 희망할 경우 내용은 '해외투자'로 쓰고, 지출(수입액)에 10억 달러를 적습니다. 해외투자를 선택 후 알제리, 콩고, 남아공에 도착하면 경상수지표에 '해외투자 수익'이라고 쓰고, 수익(수출액)에 '30억 달러'라고 적습니다.

4) [게임 판] 읽는 요령을 알려주세요.

국가	 <b>인도</b> 수출희망 자동차 10억 달러 수입희망 밀 5억 달러
의미	1) 수출희망은 인도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과 액수 2) 수입희망은 인도가 원하는 수입 상품과 액수
적용	1) 나의 국가(한국, 독일, 브라질, 호주 중 한 국가) 수출품에 인도의 수입희망 상품이 있으면 수출하고, 없으면 넘어감. 2) 인도의 수출희망 상품이 나의 '수출품'에 없으면 수입하고, 있으면 수입하지 않음.

5)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경상수지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예시를 참고하세요.

**한국이 대만에 도착한 경우**




**대만**  
수입회망  
밀 20억 달러

1) 한국의 수출품에 밀이 없으므로 수출할 수 없다.  
2)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다음 차례를 기다린다.

내용	이익 (수출액)	지출 (수입액)

**한국이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경우**




**오스트리아**  
수출회망  
귀금속 10억 달러  
수입회망  
휴대폰 10억 달러

1) 한국에는 귀금속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귀금속을 수입한다.  
2) 한국 수출품에 휴대폰이 있으므로 수출할 수 있다.

내용	이익 (수출액)	지출 (수입액)
귀금속 수입		10억 달러
휴대폰 수출	10억 달러	

**한국이 콩고에 도착한 경우**




**콩고 공화국**  
수입회망  
휴대폰 10억 달러

1) 한국의 수출품에 휴대폰이 있으므로 수출할 수 있다.

내용	이익 (수출액)	지출 (수입액)
휴대폰 수출	10억 달러	

**한국이 스페인에 도착한 경우**



**스페인**  
수출회망  
포도 5억 달러

1) 한국에는 포도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포도를 수입한다.

내용	이익 (수출액)	지출 (수입액)
포도 수입		5억 달러

- 한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한다고 설명합니다.
- 게임 규칙과 별도로 단순히 무역수지 흑자는 긍정적, 적자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읽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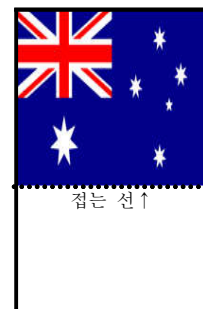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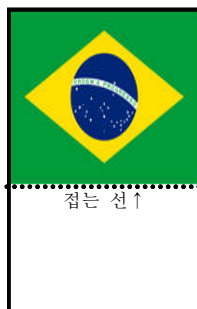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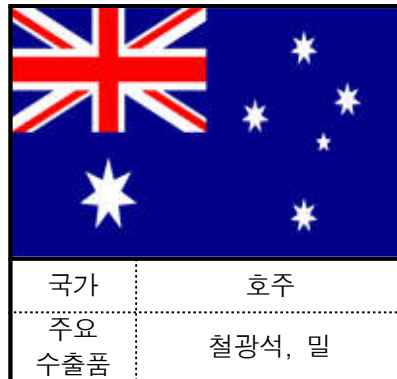
자료3: [학생용 활동지 1-2] 세계무역게임

[국가명:                    ]

경상수지표		
내 용	수익(수출액)	지출(수입액)
합 계	(     )이 (     )억달러 많다.	

#### 자료4: [국가 카드 세트]

1. 세계 무역 게임을 진행할 자신의 국가를 선택하세요. 단, 선택 순서는 빙고 게임 결과로 합니다(선택한 국가와 말을 가져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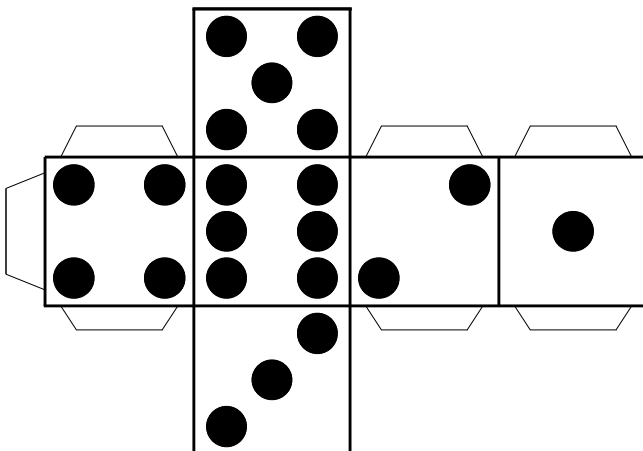


## 자료5: [게임요령]

### <게임 요령>

1.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이동합니다.
  2. 대만이 첫 번째 칸, 중국이 두 번째, 이란이 여섯 번째입니다.  
ex) 주사위를 던져 6이 나오면 '이란'으로 이동하세요.
  3. 모든 사람이 마지막 국가를 통과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4. 이동한 나라의 무역 정보를 토대로 경상수지표를 작성합니다.  
-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경상수지표 작성이 올바른지 관찰하세요.  
- 경상수지표 작성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 게임을 진행합니다.
  5.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쳐 합계를 산출합니다.  
- 수출은 (+)로 수입은 (-)로 계산합니다.  
ex) 수출 250억 달러, 수입 340억 달러일 경우 수입이 90억 달러 더 크다.
  6. 수출액이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합니다.  
ex) 만약 수입 50억, 수입 30억, 수입 20억, 수입 100억으로 게임이 종료된 경우 수입액이 가장 적은 사람이 이깁니다.
- ★ <게임 판>에서 해외투자는 선택입니다. 해외투자를 희망할 경우 내용은 '해외투자'로 쓰고, 지출(수입액)에 10억 달러를 쓰세요. 그리고 해외투자를 선택 후, **알제리, 콩고, 남아공**에 도착하면 경상수지표에 '**해외투자 수익**'을 쓰고, 수익(수출액)에 '**30억 달러**'를 쓰세요.

## 자료6: [주사위]



자료7: [게임 판]

 <b>대만</b> 수입회망 밀 20억 달러	 <b>중국</b> 수출회망 휴대폰 10억 달러	 <b>베트남</b> 관광: 5억 달러 (지출 5억 달러)	 <b>방글라데시</b> 수입회망 밀 10억 달러	 <b>인도</b> 수출회망 자동차 10억 달러 수입회망 밀 5억 달러
 <b>이란</b> 수출회망 원유 30억 달러	 <b>사우디아라비아</b> 수출회망 원유 20억 달러 수입회망 철광석 10억 달러	 <b>오만</b> 수출회망 원유 20억 달러 수입회망 사탕수수 5억 달러	 <b>시리아</b> 내전 중 (무역 불가)	 <b>이스라엘</b> 수입회망 의류 10억 달러
 <b>해외투자</b> 10억 달러 아프리카 국가에 도달 시 30억 달러 수익	 <b>그리스</b> 수출회망 오렌지 5억 달러	 <b>크로아티아</b> 수입회망 자동차 10억 달러 커피 5억 달러	 <b>오스트리아</b> 수출회망 귀금속 10억 달러 수입회망 휴대폰 10억 달러	 <b>이탈리아</b> 수입회망 밀 10억 달러
 <b>영국</b> 수입회망 의류 10억 달러	 <b>아일랜드</b> 수입회망 사탕수수 5억 달러	 <b>프랑스</b> 수출회망 항공기 30억 달러 수입회망 철광석 10억 달러	 <b>스페인</b> 수출회망 포도 5억 달러	 <b>포르투갈</b> 수입회망 사탕수수 5억 달러
 <b>해외여행</b> 5억 달러 지출	 <b>알제리</b> 수입회망 휴대폰 10억 달러	 <b>콩고 공화국</b> 수입회망 휴대폰 10억 달러	 <b>남아프리카공화국</b> 수출회망 오렌지 5억 달러	 <b>아르헨티나</b> 수출회망 밀 5억 달러 수입회망 자동차 5억 달러
 <b>콜롬비아</b> 수출회망 커피 20억 달러	 <b>멕시코</b> 수출회망 원유 10억 달러 수입회망 자동차 5억 달러	 <b>아이티</b> 대의원조 5억 달러 (지출 5억 달러)	 <b>미국</b> 수출회망 휴대폰 10억 달러 의류 10억 달러	 <b>일본</b> 수출회망 자동차 20억 달러 수입회망 철광석 10억 달러

## GLOBAL in COREA!

### 준비하기

- [정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8: [고려, 코리아로 불리다] 동영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xIc1lEvFnc8>, 4분 56초)
  - 멀티미디어 환경 구축

### 수업 진행하기

- 1) 역사 속에서 글로벌 무역항의 뿌리를 찾아봅니다.
  - 고려시대 국제 무역항인 개경과 벽란도는 지금의 어디인지 설명해 줍니다.
    - 개경은 지금의 개성으로, 고려시대 때에 개경으로 불리었다고 설명합니다. 벽란도는 고려시대의 도읍인 개경 가까이 있던 국제 무역항으로, 수심이 비교적 깊어 배의 출입이 자유로운 항구로, 당시 중국과 일본, 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와 교역했음을 설명해 줍니다.
- 2) 'KOREA'라는 단어의 유래에서 알아보는 글로벌 경제활동의 원류를 [고려, 코리아로 불리다]를 통해 확인합니다.
  - 우리나라를 세계 시장에 '코리아'로 널리 알려진 상인은 어느 나라인지 설명해 줍니다.
    - 고려시대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교역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코리아'로 서방 세계에 알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문으로 'KOREA'로 불리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Tip!!** 선생님은 정리수업에서 위의 두 가지를 설명하시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시고 학생들의 답변을 유도하셔도 좋습니다.

## 국제수지표의 흑자와 적자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자본·금융계정과 오차 및 누락을 합하면 항상 0이 되도록 작성된다. 오차 및 누락항을 무시한다면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의 합계가 항상 0이 되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가계부의 경우에도 월별로 한 치의 오차도 없다면 이번 달에 들어온 금액은 나간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이번 달에 들어온 금액을 말하는 가계의 수입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을 매각하여 받은 돈, 다른 데서 빌린 돈 등을 의미하는 기타 수입도 포함된다. 지난 달에 쓰지 않고 남은돈이 있다면 전월 이월금이라는 수입항목으로 분류한다. 반면 나간 금액을 말하는 가계의 지출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을 위한 소비 지출뿐만 아니라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의 비소비 지출과 저축·자산매입·대출상환 등의 기타 지출도 포함된다. 이번 달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이 있다면 월말 현금잔고라는 지출항목으로 분류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수입(소득 + 기타 수입 + 전월 이월금) = 지출(소비 지출 + 비소비 지출 + 기타 지출 + 월말 현금 잔고)'의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한다고 해서 가계수지가 실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벌어들인 소득이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을 합한 것보다 많으면 흑자이고, 반대로 작으면 적자일 것이다. 기타 수입이나 기타 지출 등은 흑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수지' 개념을 이용하여 '소득 - 소비 지출 - 비소비 지출 = (기타 지출 - 기타 수입) + (월말 현금 잔고 - 전월 이월금)'의 관계로 정리하면 흑자 상태에 있는 가계는 자산매입 또는 대출 상환을 위해 지출하든지 현금 보유를 늘린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국제 거래로 확장하면 우선, 소득과 소비 및 비소비 지출의 차이는 경상수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근로 또는 투자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차이인 분원소득수지, 대가 없이 주고받은 소득과 지출의 차이인 이전소득수지는 모두 경상수지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기타 지출과 기타 수입의 차이는 자본·금융계정과 관련이 있다. 해외이주비와 같은 자본의 이전,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비생산·비금융 자산의 취득에 따른 지출과 수입의 차이는 자본수지에 해당한다. 한편 생산·금융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대출 등 기타 투자에 따른 지출과 수입의 차이는 금융계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월말 현금잔고와 전월 이월금의 차이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수지표에서는 금융계정 항목 중의 하나인 준비자산증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수지표는 가계부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국제수지표에서는 수입과 지출 대신 그 차이인 수지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을 작성한다. 또한 국제수지표에서는 ‘수입 = 지출’ 보다는 ‘수입 - 지출 = 0’, 즉 ‘수지 = 0’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때문에 국제수지표에서는 ‘경상수지 + 자본·금융계정 = 0’이 되고 자본·금융계정의 수입은 양(+)의 부호를, 지출은 음(-)의 부호를 갖게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소비 또는 비소비 지출보다 많은 경우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지만, 남은 소득을 이용하여 해외의 자산을 구입하든지 대출을 상환하든지 아니면 외환 보유를 늘리게 되기 때문에 자본·금융계정은 적자가 된다. 흔히 국제수지가 흑자라고 할 때는 가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소비 또는 비소비 지출보다 많은 경우, 즉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수지 와 경상수지를 혼용하여 쓰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경호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click 경제교육』 2012년 11월 호

## 경상수지 적자는 항상 부정적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붉은색은 주로 위험이나 경고, 금지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된다. 출입금지나 정지신호, 각종 위험에 대한 경고를 표시할 때뿐만 아니라 축구의 레드카드(퇴장)와 같이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자 할 때 붉은색이 자주 사용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많은 국민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열광적으로 응원했던 기억 덕분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붉은색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위나 노사분쟁 등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자주 나타나는 붉은색 머리띠·깃발·글씨 등은 붉은색을 친근하게 대하기 쉽지 않은 색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렇다면 회계장부상에서의 붉은색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은 상황을 흑자(黑字)라고 하고, 반대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을 적자(赤字)라고 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선입견 때문인지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면 흑자는 양호하고 바람직한 상태이지만, 적자는 위험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상태라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생각은 경상수지에 서도 옳을까?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 비록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7개월째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논조가 부정적인 이유는 바로 흑자의 내용 때문이다. 즉 흑자라 해도 그것이 수입을 상회하는 큰 폭의 수출 증가에 의한 흑자가 아니라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서 나타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면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비재뿐만 아니라 향후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성장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로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비록 경상수지상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기록되겠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나 해외에서 유입된 고급 인력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일 등은 외화의 유출 요인으로 경상수지를 적자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더 큰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는 자주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투자가 감소하고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던 입장(경상이전수지 (+) 요인)에서 경제성장 등을 통해 국력이 높아지면서 각종 국제기구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분담금을 이전보다 많이 지출하게 된 것(경상이전 수지 (-) 요인)도 단순히 경상수지 항목에서 외화의 유입과 유출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 경제를 배우는 학생이라면 붉은 숫자를 뜻하는 적자에 대해 무조건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적자 그 자체가 아니라 적자의 내용에 대해 따져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정원석 성신여고 교사

『click 경제교육』 2012년 11월 호



---

중등 2차시

교환을 했더니  
이익이 더 발생했어요!





## □ 학습목표

- 자발적인 교환이 서로에게 이득이 됨을 알 수 있다.
- 교환의 이득이 발생하는 원리를 알 수 있다.

## □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게임 자료

## □ 수업내용 구성

주요개념	교환의 이득, 무역		
심화개념	비교우위		
교육단계	지도 방식	지도 내용	유의점 · 준비물
도입 (5분)	활동 1 선생님 설명 문제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선수 예화로 특화와 교환의 개념을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2-1]</li> </ul>
전개 (35분)	활동준비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모둠으로 구성함</li> <li>• 게임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학생용 활동지] 및 [게임 자료]를 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2-2]</li> <li>• [게임 자료]</li> </ul>
	활동 2 생산· 무역게임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하고 교환하기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라운드: 생산요소 교환 없이 자국 보유 자원으로 생산</li> <li>- 2라운드: 국가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생산</li> <li>- 3라운드: 완제품 교환게임</li> </ul> </li> <li>• 게임 결과 기록하고 논의</li> <li>• 교환의 이득에 대해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규칙을 확실히 이해했음을 확인 한 후 진행</li> </ul>
정리 (5분)	정리 초성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성퀴즈로 배운 교역이 이득을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2-3]</li> </ul>

## 박인비 선수는 직접 골프용품 수리를 해야 할까?

### 준비하기

- [도입] 활동 1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1: [학생용 활동지 2-1] × 학생수

### 수업 진행하기

- 1) 세계 정상급 골프선수가 골프용품 수리도 잘 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 경우 직접 골프용품 수리도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생각해보도록 유도합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에 특화해 교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직관적으로 알도록 합니다.
  - 박인비 선수가 골프를 하면 시간당 100만 원의 생산성을 내고 골프용품 수리를 하면 시간당 5만 원의 생산성을 낸다고 가정합니다.
  - 이웃에 사는 김모모 씨는 골프용품 수리를 하면 시간당 4만 원의 생산성을 내며 김모모 씨는 골프용품 수리 이외에 할 일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박인비 선수가 직접 의류 수선을 해야 할까요?
    - 박인비 선수는 김00씨에게 골프용품 수리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박인비 선수는 김모모 씨에 비해 골프와 골프용품 수리를 모두 잘합니다. 박인비 선수가 골프용품 수리를 1시간 하면 100만 원을 포기하는 셈이 되지만, 김모모 씨는 골프용품 수리 1시간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 박인비 선수가 골프를 할 경우 포기하는 것은 5만 원입니다. 따라서 박인비 선수는 골프에만 전념하고 골프용품 수리는 김모모 씨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2) 위의 예에서 보듯이 기업 혹은 국가의 경우도 다른 기업이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집중(특화)하고, 다른 것은 그것을 상대적으로 잘하는 기업 혹은 나라에서 맡도록 하는 방식이 유리함을 설명합니다. 게임을 통해 이러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자료1: [학생용 활동지 2-1] 박인비 선수는 직접 골프용품 수리를 해야 할까?

2016년 리우 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의 주인공 박인비 선수. 세계 정상급 골프 선수인 그녀가 골프용품 수리 실력도 상당한 수준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박인비 선수는 직접 골프용품 수리를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말해 봅시다.

### <상황>

박인비 선수의 골프 치기는 시간당 100만 원의 생산성을 내는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골프 연습도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골프 치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박인비 선수가 골프용품 수리를 하면 시간당 5만 원, 이웃에 사는 김모모씨는 골프용품 수리를 하면 시간당 4만 원의 생산성을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김모모씨는 골프용품 수리 이외에 할 일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박인비 선수는 직접 골프용품 수리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인비 선수의 사례를 기업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잘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모두 잘하는 기업, 혹은 국가도 그 중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에 특화하고 다른 것은 그것을 상대적으로 잘하는 쪽에서 생산하게 하는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기업 사장이 되어 이와 관련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 [전개] 활동 2

# 만들고 교환하고!

### 준비하기

- [전개] 활동 2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2: [학생용 활동지 2-2] × 학생수
  - 자료3: [게임 설명] × 모둠수
  - 자료4: [국가 이름 판 세트] × 1장
  - 자료5: [생산요소 카드 세트(스마트폰, 운동화)] × 18장
  - 자료6: [생산요소 카드 세트(과인애플 주스)] × 6장(착즙기는 3장)
  - 자료7: [완제품 카드 세트(스마트폰, 운동화)] × 6장
  - 자료8: [완제품 카드 세트(과인애플 주스)] × 2장
  - 자료9: [모둠원 역할카드] × 모둠수
  - [목걸이형 명찰] × 학생수
  - [편지봉투] 또는 [서류봉투] × 모둠수
- 학생들을 총 6모둠으로 편성해주세요.

**Tip!!** 모둠 구성은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구성하시거나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 수업 진행하기

- 1) [게임 설명]과 [국가 이름 판]을 1장씩 모둠별로 나눠줍니다. [국가 이름판]은 삼각기둥 모양으로 접어서 해당 모둠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 2) 선생님은 [편지봉투] 또는 [서류봉투]의 윗면에 6개 국가 명(한국, 중국, 미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을 하나씩을 적습니다.

3) 아래 <국가별 생산요소 배분표>에 따라 봉투에 [생산요소 카드]를 배분해 넣어줍니다. 이는 국가별로 자원을 불균등하게 보유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b>&lt;국가별 생산요소 배분표&gt;</b>			
국가	한국	미국	중국
생산요소카드 분배	메인보드: 12장 액정: 6장	메인보드: 6장 배터리: 6장 액정: 6장 파인애플: 2장 유리병: 2장 착즙기: 1장	배터리: 12장 액정: 6장
국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생산요소카드 분배	운동화천: 6장 고무밀창: 12장 운동화끈: 6장	운동화천: 6장 운동화끈: 12장 파인애플: 2장 유리병: 2장 착즙기: 1장	운동화천: 6장 고무밀창: 6장 파인애플: 2장 유리병: 2장 착즙기: 1장

- 한국, 미국, 중국 3개국은 스마트폰 생산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주스도 생산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운동화 생산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스도 생산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최대 생산 가능량은 스마트폰의 경우 총 18대, 운동화는 총 18켤레, 파인애플 주스는 6병입니다.

**Tip!!** 착즙기는 고정생산요소 성격을 갖는 기계로, 한 대만 있어도 여러 병의 주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 4) [생산요소 카드]를 해당 모둠에 나누어줍니다.
  - 국가별 생산요소가 담긴 봉투를 해당 국가를 맡은 모둠에 나누어줍니다.
- 5)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게임 규칙을 설명하고, 모둠원의 역할을 배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략가 1명, 교환원 1~2명, 생산원 1명, 기록가 1명입니다.
  - 전략가는 어느 나라와 생산요소를 교환할지 전략을 세웁니다.
  - 교환원은 직접 생산요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 생산원은 각 완제품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모아 선생님께 내고 완제품카드를 받아옵니다.
  - 기록가는 생산요소를 어느 나라와 어떻게 교환했는지 기록합니다.
  - [모둠원 역할카드]는 목걸이형 명찰에 넣어 맡은 역할에 따라 목에 걸도록 합니다.
- 6) 1회차 생산게임을 진행합니다. 다른 국가(모둠)와 교역 없이 국가별로 보유한 생산자원만으로 생산을 하도록 합니다.
- 7) 각 물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 카드]가 모이면 교사에게 와서 [완제품 카드]로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Tip!!** 생산품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칠판에 게시해주면 좋습니다.

- 8) 1회차 게임 종료 후 선생님은 각 모둠의 생산물, 생산량, 남은 생산요소를 칠판에 기록합니다. 학생들은 결과를 활동지에 적어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에서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 9) 곧바로 2회차 생산게임을 진행합니다. 2회차 게임에서는 다른 모둠과 생산요소를 교환해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합니다. 2회차 게임 종료 후 선생님은 각 모둠의 생산물, 생산량, 남은 생산요소를 칠판에 기록합니다. 학생들은 결과를 활동지에 적어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에서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Tip!!** 빠른 진행이 필요한 경우, 국가별 보유 생산요소를 칠판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회차의 생산요소의 교역 없이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와, 2회차의 생산요소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생산되었을 때 각국의 생산을 비교합니다. 각 국가의 차원에서 이득이 됨과 동시에 경제 전체의 생산량의 총합이 커졌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선생님 잠깐만!

1회차 결과와 2회차 결과의 비교가 수업의 핵심입니다. 특히, 2회차 결과 1회차에 비해 사회 전체 생산량의 총합이 훨씬 커졌음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자국에 있는 생산요소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구할 때 비용이 덜 드는(효율적일 경우) 교환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해주세요. 이를 통해 교환에 참여한 국가 모두가 이득을 얻게 됩니다.

10) 3회차 완제품 교환 게임을 통해 세 가지 제품을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 게임 종료 후, 결과를 칠판에 기록합니다.
- 3회차에서 완제품 교환을 통해 각국에게 이득이 되는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니다.

**Tip!!** 게임 후 논의할 때, 읽기 자료 1과 3을 심화자료로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료2: [학생용 활동지 2-2] (1면)

1회차: 생산요소 교환 없이 생산			
모듬명	생산품 항목	생산품 개수	남은 생산요소
한국			
미국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체 생산량
스마트폰	
운동화	
파인애플 주스	

자료2: [학생용 활동지 2-2] (2면)

2회차: 다른 국가와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교환하여 생산

모듬명	생산품 항목	생산품 개수	남은 생산요소
한국			
미국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체 생산량
스마트폰	
운동화	
파인애플 주스	

 1회차와 비교할 때 어떤 국가가 이득을 보았나요?

 1회차와 비교할 때 전체 생산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자료2: [학생용 활동지 2-2] (3면)

3회차: 완제품 교환게임

모듬명	보유량		
	운동화 개수	스마트폰 개수	파인애플 주스 개수
한국			
미국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2회차에서 생산요소의 교환을 통해 이득이 되는 점은 무엇이었나요?

 3회차에서 완제품을 통해 각국에게 이득이 되는 점은 무엇이었나요?

### 자료3: [게임 설명] 만들고, 교환하고! (앞면)

여러분은 오늘 모둠별로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각 모둠은 생산 및 교환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생산품은 스마트폰, 운동화, 또는 파인애플 주스입니다.

**\* 각 국가는 생산품을 골고루 가지고 싶어 합니다.**

#### □ 게임 준비

- 1) 3~4명씩 한 모둠이 되어 활동 합니다.
- 2) 모둠별로 생산요소 봉투를 1개씩 받습니다.  
총 6개 봉투가 있는데, 각 봉투에 들어있는 생산요소의 종류와 개수는 다릅니다.

#### □ 게임 안내

##### <1회차> 제품 생산 게임 : 생산요소 교환 없음

- 1) 자국 내 생산요소로 생산 가능한 물품을 만듭니다.  
필요한 생산요소카드를 확보하면 완제품을 제조한 것입니다!

##### <2회차> 제품 생산 게임: 생산요소 교환 있음

- 1) 다른 모둠과의 생산요소 교환을 통해 물품을 만듭니다.  
가능한 많은 완제품을 만들도록 합니다.

#### <모둠원의 역할>

- 전략가는 어느 나라와 생산요소를 교환할 지 전략을 세웁니다.
- 교환원은 직접 생산요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 생산원은 각 완제품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모아 선생님께 내고 완제품카드를 받아옵니다.
- 기록가는 생산요소를 어느 나라와 어떻게 교환했는지 기록합니다.

#### <운동화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카드>

: 총 3종류, 각 1장씩 있으면 운동화 1켤레 완성

운동화 천



운동화 끈



고무밑창



**자료3: [게임 설명] 만들고, 교환하고! (뒷면)**

<p><b>&lt;파인애플 주스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카드&gt;</b>                  : 총 3종류. 단, 주스 100병까지는 착즙기 1대만 있어도 생산 가능함.                  (* 착즙기는 기계이므로 1대를 보유해도 여러 병의 주스를 생산할 수 있겠지요?)</p>		
<b>파인애플</b>	<b>유리병</b>	<b>착즙기</b>
		
<p><b>&lt;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카드&gt;</b>                  : 총 3종류. 각 1장씩 있으면 스마트폰 1대 완성</p>		
<b>메인보드</b>	<b>배터리</b>	<b>액정</b>
		
<p><b>&lt;3회차&gt; 국가 간 완제품 교환게임</b></p> <p>1) 각 국가는 스마트폰과 운동화, 파인애플 세 품목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p> <p>2) 자신의 국가에 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은 다른 나라와의 완제품 교환을 통해 확보합니다.                  * 완제품 간의 교환비율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합니다.</p> <p>3) 세 제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제품의 수가 많은 모둠이 우승입니다.</p>		
<p><b>&lt;우승조건&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는 물품을 골고루 소비하기 원하기 때문에 물품을 종류가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li> <li>• 물품 종류가 다양하고, 물품 수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li> <li>• 물품 종류 1개당 3점, 물품 개수 1개당 1점입니다.</li> </ul>		

자료4: [국가 이름 판 세트]

미국

붙이는 면

한국

붙이는 면

자료4: [국가 이름 판 세트]

중국

붙이는 면

태국

붙이는 면

자료4: [국가 이름 판 세트]

# 필리핀

붙이는 면

# 인도네시아

붙이는 면

자료5: [생산요소 카드 세트(스마트폰, 운동화)]

메인보드	배터리	액정
		
운동화 천	운동화 끈	고무밑창
		

자료6: [생산요소 카드 세트(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유리병	착즙기
		

자료7: [완제품 카드 세트(스마트폰, 운동화)]



자료8: [완제품 카드 세트(파인애플 주스)]



자료9: [모듬원 역할카드]

<b>전략가</b>	<b>생산원</b>
<b>생산요소 교환원</b>	<b>기록가</b>
<b>생산요소 교환원</b>	

## 마무리 초성퀴즈

### 준비하기

- [정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10: [학생용 활동지 2-3] × 학생수

### 수업 진행하기

- 1) 선생님은 학생들이 생산·교환 게임의 전 과정을 회상하며, 교환을 했던 이유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2) 마무리 초성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Tip!!** 마무리 초성퀴즈는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답할 수 있도록 진행하거나, 모둠원들끼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10: [학생용 활동지 2-3] 마무리 초성퀴즈**

<p><b>[마무리 초성 퀴즈]</b></p> <p>□ 활동 요령 : 배운 내용을 참고해서 퀴즈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서 출제한다. 출제자는 반드시 어떤 내용을 참고했는지를 기록해서, 논란 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p>		
1. 문제제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노동력, 자본, 토지 등을 일컫는 말은?</div>		
2. 초성제시		
入	入	〇
3. 힌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나라마다 이것의 부존량과 수준 등에 차이가 있다.</div>		
1. 문제제시		
2. 초성제시 (최대 4개까지 제시 가능)		
3. 힌트		
4. 답쓰는 곳		
	채점	

### 분업과 특화는 상호의존성의 한 단면

달인이라는 단어가 근래 들어 부쩍 흔해졌다. 실제로 이들을 소개하는 몇몇 TV 프로그램 덕분에 세상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달인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다림질 달인, 생선회 썰기 달인, 케이크 만들기 달인, 테이프 붙이기 달인, 밀가루 반죽 달인, 옷 수선의 달인, 세탁물 운반 달인…….

달인은 초인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로 하는 한 가지 작업에만 달통하고 있을 뿐, 다른 일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청소의 달인은 바느질과는 거리가 멀고, 밀가루 반죽 달인도 칼질은 일반 주부보다 나을 게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많은 경제활동 가운데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 일만을 오랫동안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 실행을 통한 학습, 기술개발의 원천

분업(division of labor)이란 한 사람의 작업자가 생산활동의 여러 공정 중 일부분만을 담당하여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분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업의 공정이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삽으로 땅을 파는 것과 그렇게 파놓은 흙을 운반하는 것은 분리된 작업 단위이므로 분업이 가능하지만, 삽으로 땅을 파는 작업 과정은 더 이상 독립된 단위로 분리할 수가 없는 노동이기 때문에 분업을 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분업과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협업이다. 분업과 협업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분업은 각자가 제각기 다른 공정의 일을 수행하는 데 반해 협업은 복수의 작업자가 같은 생산 공정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삽으로 파놓은 흙을 두 사람이 같이 운반한다면 그것은 협업이 된다. 오케스트라 연주나 합창도 여러 사람이 같은 곡을 동시에 연주한다는 점에서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협업은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의 건축과 같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분업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분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분업이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달인의 작업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자신만의 특별한 요령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지 일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터득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라고 한다. 이는 기술 개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 사회적 분업은 특화와 교환

특화(specialization)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용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특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다. 바로 교환이다.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혼자 사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특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특화를 통해 생산된 재화는 남아돌지만 다른 필요한 재화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화는 분업과 어떤 관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화는 분업과 무관한 별개의 개념이다. 따라서 두 개념의 조합에 따라 특화된 분업, 특화되지 않은 분업, 특화된 전업, 특화되지 않은 전업과 같이 다양한 작업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각자가 잘하는 일을 맡아 분업을 하는 특화된 분업이 특화되지 않은 분업보다는 당연히 더 효율적이다.

마찬가지로 혼자서 모든 일을 담당하는 전업에서도 특화는 효율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잘 잡는 로빈슨 크루소와 나무 열매를 잘 따는 프라이데이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물고기를 잡고, 프라이데이는 나무 열매를 따는 일에 특화한 후, 각자의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면 특화를 하지 않고 자급자족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흔히 사회적 분업이라고 부르는 업무분화 현상은 분업이 아니라 특화와 교환인 것이다.

### 노동의 기회비용=특화 기준

그렇다면 특화의 기준은 무엇일까? 주부가 집안 청소를 하는 데는 3시간이 걸리고 밖에 나가 3만 원을 벌어드는 데는 6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하는 데는 2시간이 소요되고 역시 밖에 나가 3만 원을 버는 데는 3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남편은 두 가지 일을 모두 아내보다 잘하니까 그것을 혼자 다 하는 것이 좋을까?

주부가 3시간을 들여 집안 청소를 하는 대신 밖에 나가 돈을 벌었다면 그녀는 1만 5천 원을 벌 수 있다. 즉, 주부가 청소를 하느라 포기한 소득, 즉 청소의 기회비용은 1만 5천 원이다. 그런데 남편이 2시간을 소비하면서 청소를 하는 대신 밖에서 일을 했다면 2만 원을 벌 수 있다. 즉, 남편이 청소를 하는 기회비용은 2만 원이다. 즉 청소 시간당 기회비용은 아내가 5천 원, 남편은 1만 원이 된다.

따라서 비록 아내가 남편만큼은 청소를 못하더라도 기회비용에서는 남편보다 더 적기 때문에 가정 전체로 볼 때 집안청소는 아내가 하는 편이 유리하다. 즉, 아내는 남편에 비해 돈 버는 일과 청소하는 일에 모두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더라도 청소에 있어서는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일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은 남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일에 종사하는 것이 바로 특화다. 즉 특화의 기준은 노동의 기회비용이다. 특화는 당사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디서나 자발적으로 나타난다. 야구에서도 투수와 타자의 구분, 투수 중에서도 선발 투수와 중간 계투, 마무리 투수의 보직 구분은 자신이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자발적으로 특화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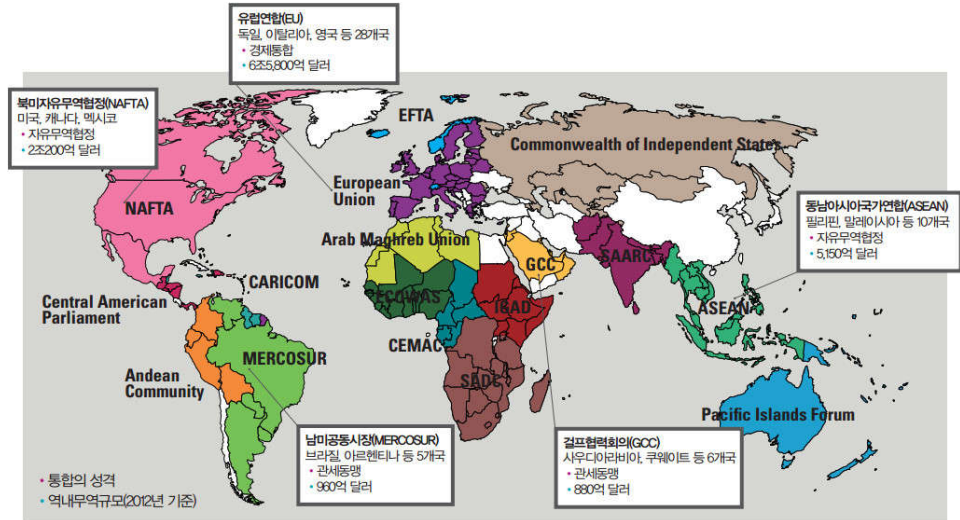
특화와 분업은 때로는 같이, 때로는 별개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서로 연결되며 의존적이라는 사실이다. 나의 작업이 다른 사람의 작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분업은 불가능하다. 또 내가 특화하여 생산한 재화가 다른 사람의 생산물과 교환되지 않는다면 특화는 무의미하다. 특화와 분업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의 한 단면이다. 인간 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이 이처럼 상호의존적이라는 원리를 잘 이해할 때, 우리 사회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보다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영수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전공 교수

『click 경제교육』 2014년 2월호

## 읽기 자료 2

###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자유무역 극대화



세계경제의 흐름에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와 지역화 움직임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세계화란 무역과 자본의 자유화 추진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1995년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지역화는 특정한 국가 간에 무역의 장애를 없애고 경제활동을 자유화하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또한 경제 분야를 포함 사회·문화·정치 분야 등에 대한 지역 간 협력기구를 탄생시키는 과정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에 따라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를 갈등 관계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보완 관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갈등 관계로 보는 시각은 지역주의가 세계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한 무역 경쟁의 심화가 유럽에서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시켰고 그러한 경제통합이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을 탄생시켰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와 반대로 보완 관계의 시각은 지역주의 현상을 세계화가 추구하는 자유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해석한다. 지역경제통합이 궁극적으로는 세계자유무역화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경제통합은 저마다 탄생 배경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역내국가 간에는 특혜 대우를, 역외국가인 제3국에게는 차별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대륙별 지역경제통합 그리고 지역협력기구의 이해를 통해 세계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알아보자.

## 지역통합, 먼저 주변국가와 장벽을 낮춰야

1993년 11월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가 확대되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탄생했다. EU의 출범 목적은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2015년 6월 현재 EU에 가입된 가맹국은 독일, 프랑스 등 28개국에 이른다. EU는 유로화 출범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 경제의 패권을 탈환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현재 공동시장의 단계를 넘어 경제동맹(Economic Union) 수준의 경제통합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다.

1994년 1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목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출범시켰다. NAFTA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을 결합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EU를 견제하고 멕시코를 협정에 포함시켜서 중남미와 관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경제적 탄생 배경도 내포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5년까지 공동시장 완성을 목표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 참여하에 1991년에 출범되었다. 2012년 7월에는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하였다. 대외 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여 관세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정기간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어 경제통합 단계 중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중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주의 표방하에 출범한 MERCOSUR는 각 나라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자립주의로 성향이 바뀌었다. 최근 남미공동시장이 보호주의 강화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중남미의 또 다른 핵심축인 멕시코, 페루, 칠레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 2012년 5월에 출범되었다. 태평양동맹은 자유무역, 경제통합 그리고 국제교역 활성화를 목표로 회원국 간 92%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2020년까지 100% 무관세 교역을 목표로 하여 남미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다. 그 후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 5개국이 가입해 현재 10개국이 회원국이다. ASEAN 동남아 지역 협력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기반을 확립하고,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며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동아시아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초청하여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풍부한 자원, 거대한 소비시장, 중국 대체 생산기지 그리고 이제 막 시장이 제대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남아국가연합에 주목하고 있다. 2015년 말에는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이 예정되어 있다.

중동지역에는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6개국이 설립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가 있다. 이란혁명으로 인한 왕정붕괴, 이란과 이라크 전쟁, 소련(현재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걸프만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과 전쟁이 걸프협력회의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걸프협력회의는 이러한 안보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그 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창설하는 등 경제협력

분야도 강화하고 있다. 걸프협력회의 회원 국가들은 세계 석유매장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경제협력체의 속내도 자유무역 추구

자유무역을 목표로 출범한 지역경제통합과 차이는 있지만 경제, 사회문화, 정치 분야 협력을 위해 탄생한 지역간 경제협력체도 세계경제의 지역화에 한몫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아시아와 태평양을 둘러싼 회원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1989년에 출범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APEC을 창설하여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은 APEC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EU와의 협상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창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유럽과의 연계를 통해 미국견제를 원하는 아시아 측과 경제관계 강화로 아시아시장 확보를 원하는 유럽 측간의 상호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출범했다.

2005년 6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출범했다.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 협정에 서명하면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의도로 TPP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보다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자유무역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 시장의 패권을 위한 정치적, 안보적인 갈등 요인도 녹아 있다.

서현원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click 경제교육』 2015년 7월호

## 분업과 특화의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성장 견인



오늘날에는 국가마다 FTA 체결, EU와 같은 경제통합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무역의 이득을 실현하고 있다. 사진은 수많은 물류가 오가는 수출입 항구

1845년 프랑스 태생의 정치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는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관세를 올리자 ‘양초업자의 탄원’이라는 풍자 글을 집필한다. 글의 주된 내용은 빛을 생산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내 양초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월등히 좋은 조건에서 작업을 하는 외국의 경쟁자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월등히 좋은 조건에서 빛을 생산하는 외국의 경쟁자’는 다음 아닌 태양이다. 그는 태양을 가릴 수 있도록 빛이 새어 들어올 만한 모든 문과 창문, 그리고 틈새를 막는 법안을 만들면 인공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프랑스의 양초와 그 연관 산업은 발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호무역정책을 풍자했다. 그는 이 밖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오른팔을 잘라내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모든 사람이 한 팔로만 일하면 일자리 수요가 두 배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산업혁명,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무역정책을 논함에 있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자주 갈등을 빚어 왔다. 보호무역은 15세기 중상주의의 시작과 함께 나타났다. 중상주의(Mercantilism)란 유럽의 절대왕정이 국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통치 철학이었다. 당시 각국의

군주가 대내외적인 지배력의 원천을 경제력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의 국부(國富)라는 것은 금, 은 등의 귀금속이었다. 이러한 국부를 증진하려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났다. 자국 상품의 수출은 외국의 금과 은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이었지만, 수입은 금과 은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율의 수입관세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하였다. 이처럼 한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제품과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산품을 보호하는 사상을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라고 한다.

1860년대를 전후해서는 자유무역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시발점은 영국의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면사 생산력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중엽에는 다른 모든 국가의 면직물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도 영국의 생산량이 많았다고 하니 그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2,000만 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300년간 유럽을 지배했던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정책에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늘어난 생산량을 소화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은 다름 아닌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Adam Smith)였다.

### 유럽의 보호무역조치가 세계대전 불러

애덤 스미스가 그의 책 『국부론』에서 주장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되는 자유시장만이 아니다. 그는 국부론을 통해 모든 인간은 지금보다 더 잘살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성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자유무역’이다.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생산량이 40만 %씩 증가하더라도 각종 규제나 비용 때문에 이를 판매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애덤스미스는 노동의 분업을 통해 개개인이 전문화될 수 있듯이 지역과 국가도 전문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섬유를, 프랑스는 와인 생산에 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그의 주장은 와인을 영국이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면 프랑스산 와인을 수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 경우 프랑스는 와인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고 하고, 이러한 주장을 ‘절대우위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유무역의 논리는 약 40년 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에 의해 보다 강화된다. 리카도는 1817년에 집필한 그의 책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에서 다른 나라가 어떤 상품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비교우위론’을 통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어촌에 사는 김씨는 물고기 1마리를 잡는데 20시간이 걸리고, 나무로 집을 짓는 데는 40시간이 걸리는 반면 도시에 사는 도씨는 물고기 1마리 잡는데 30시간 그리고 집을 짓는데 90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애덤 스미스의 주장대로라면 물고기 잡기와 집짓기 모두 김씨가 절대우위에 있기 때문에 김씨와 도씨 사이에는 교역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

하지만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이러한 상황에도 교역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김씨는 1년 간 4,000시간을 일하고 이 중 물고기 잡기와 집짓기에 절반을 사용할 경우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은 100마리이고, 만들 수 있는 집은 총 50채가 된다. 한편 도씨는 1년 간 7,200시간을 일하고 물고기 잡기와 집짓기에 절반씩 사용한다면 120마리의 물고기와 40채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물고기와 집은 각각 220마리와 90채가 된다. 반면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만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경우 김씨는 집 100채를, 도씨는 물고기 240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비교우위의 시사점이 담겨 있다. 바로 절대 우위에 있지 못하더라도 각자가 잘하는 분야를 전담할 경우 그 성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승자독식이 만연한 요즘, 약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리카도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에는 국가마다 FTA 체결, EU와 같은 경제통합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무역의 이득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역사상 패권국의 국력이 약할 때는 보호무역정책을 전개하다가 경제가 일정 수준 발전한 다음에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방법이 과거에 비해 세련되게 바뀌었을 뿐 이러한 패턴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하지만 역사는 매번 보호주의정책은 손해로 귀결됨을 알려주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 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100년 동안은 자유주의의 전성기이자 유럽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임을,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유럽의 보호무역조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 분업과 특화

분업은 생산과정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특화는 각국 혹은 각자가 소질이 있는 소수의 몇몇 생산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영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

『click 경제교육』 2015년 6월호



---

중등 3차시

#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 □ 학습목표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지도를 만들 수 있다.
-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 FTA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게임 자료, 멀티미디어 환경(컴퓨터, 빔프로젝터/모니터, 스피커)  
동영상 자료

## □ 수업내용 구성

주요개념	FTA		
교육단계	지도 방식	지도 내용	유의점 · 준비물
도입 (5분)	동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설명 동영상 시청</li> <li>• 동영상 시청 후, FTA 의미와 효과에 대해 간단히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자료]</li> </ul>
전개 (30분)	활동 1 지도에 FTA 체결국가 표시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을 지도에 색칠해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3-1]</li> </ul>
	활동 2 FTA의 개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탐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IE로 FTA 개념을 이해</li> <li>•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 학습</li> <li>• FTA 체결이 수입국과 수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탐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3-2]</li> <li>• 관세율 변화의 산술계산은 지양해 '가격수준'의 변화로 단순화함.</li> </ul>
정리 (10분)	동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을 통해 FTA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생활 변화</li> <li>- 달라진 생산 현장</li> <li>- 새로운 직종과 유망 직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3-3]</li> <li>• [동영상 자료]</li> </ul>

## [도입]

# 상품은 같은데 가격이 달라요!

### 준비하기

- [도입]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1: [더 큰 시장! 더 큰 기회! 더 큰 세계로! FTA!] 동영상  
([http://www.fta.go.kr/Assets/UpFile/FCK\\_files/flash/FTA\\_space.wmv](http://www.fta.go.kr/Assets/UpFile/FCK_files/flash/FTA_space.wmv), 1분 35초)
  - 멀티미디어 환경 구축

### 수업 진행하기

- 1)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관련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 2) 학생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고, 동영상을 보며 답을 찾게 합니다.
  - 첫 번째 메리카 행성으로 상품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하나요?
    - 세관이에요.
  - 메리카 행성에서는 관세(세금)를 얼마나 부과했나요?
    - 20%예요.
  - 관세가 있을 경우 물건 값이 어떻게 될까요?
    - 비싸져요.
  - 두 번째로 찾아간 찰리행성에서 같은 상품을 팔았을 때 더 잘 팔렸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물건 가격이 더 싸요.
  - 같은 상품이라도 찰리행성에서 가격이 더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세금이 없어서요 또는 FTA를 맺어서요.
- 3) 동영상을 통해 FTA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후 [전개] 활동에 대해 안내합니다.
  - 활동 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지도 만들기
  - 활동 2: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 알아보기

## [전개] 활동 1

#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나라 찾아보기

### 준비하기

- [전개] 활동 1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2: [학생용 활동지 3-1] × 모둠수
  - 자료3: [FTA 체결국 목록] × 모둠수
  - 색연필 or 싸인펜
- 4인 1모듬으로 편성해주세요.

### 수업 진행하기

- 1) [학생용 활동지 3-1]과 [FTA 체결국 목록]을 배부합니다.
- 2)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를 알아보는 퀴즈를 진행하고 지도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 <퀴즈>

- 1) 중남미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 2)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입니다.
- 3)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입니다.

정답 : 칠레

**Tip!** 힌트는 한 개씩 제공하여 학습자가 사고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FTA 체결 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지도에 색칠하도록 합니다.
  -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공동체(EU, EFTA, ASEAN)는 미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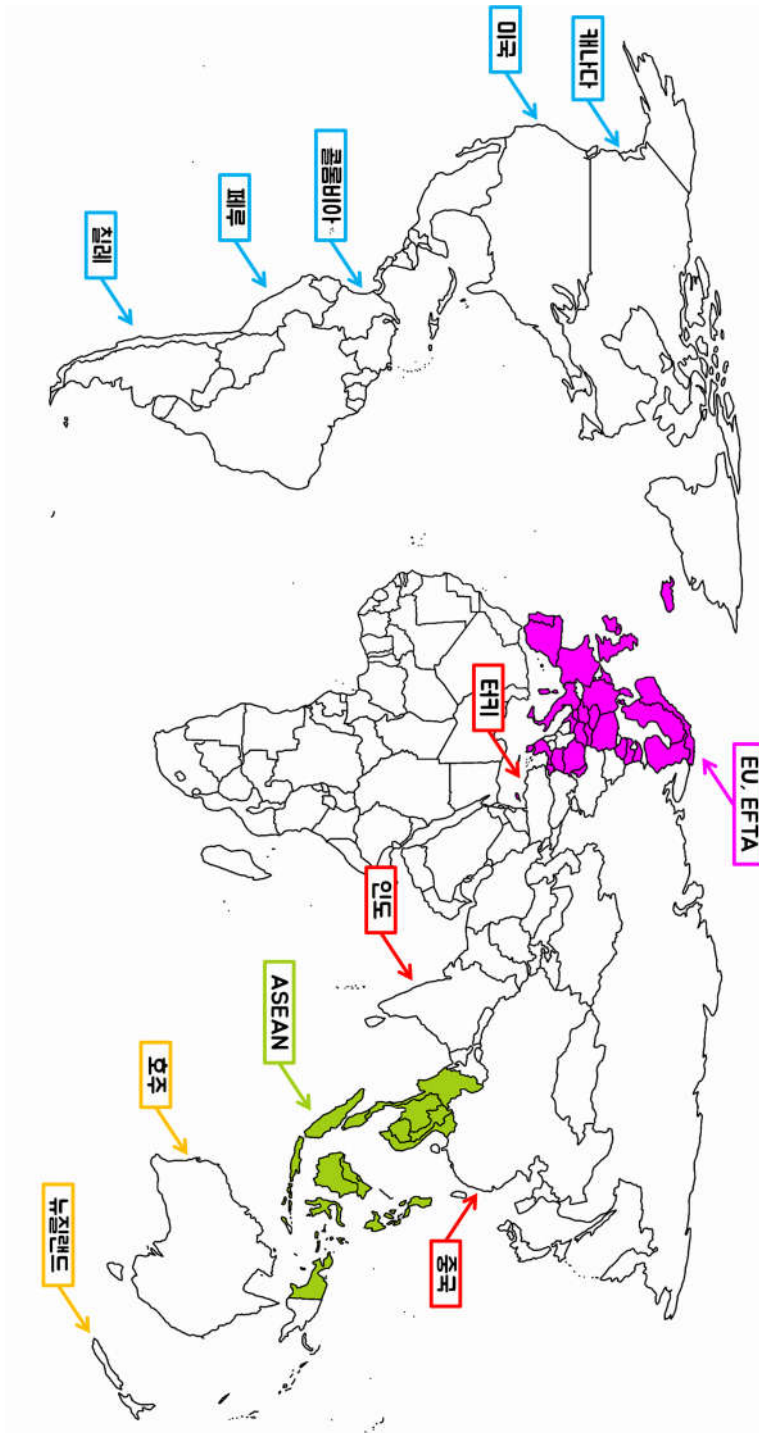
- 표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를 [학생용 활동지 3-1]에서 찾아 색칠하게 합니다.

**Tip!!** 시각적 효과와 추후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대륙별 혹은 국가별로 색상을 다르게 칠할 것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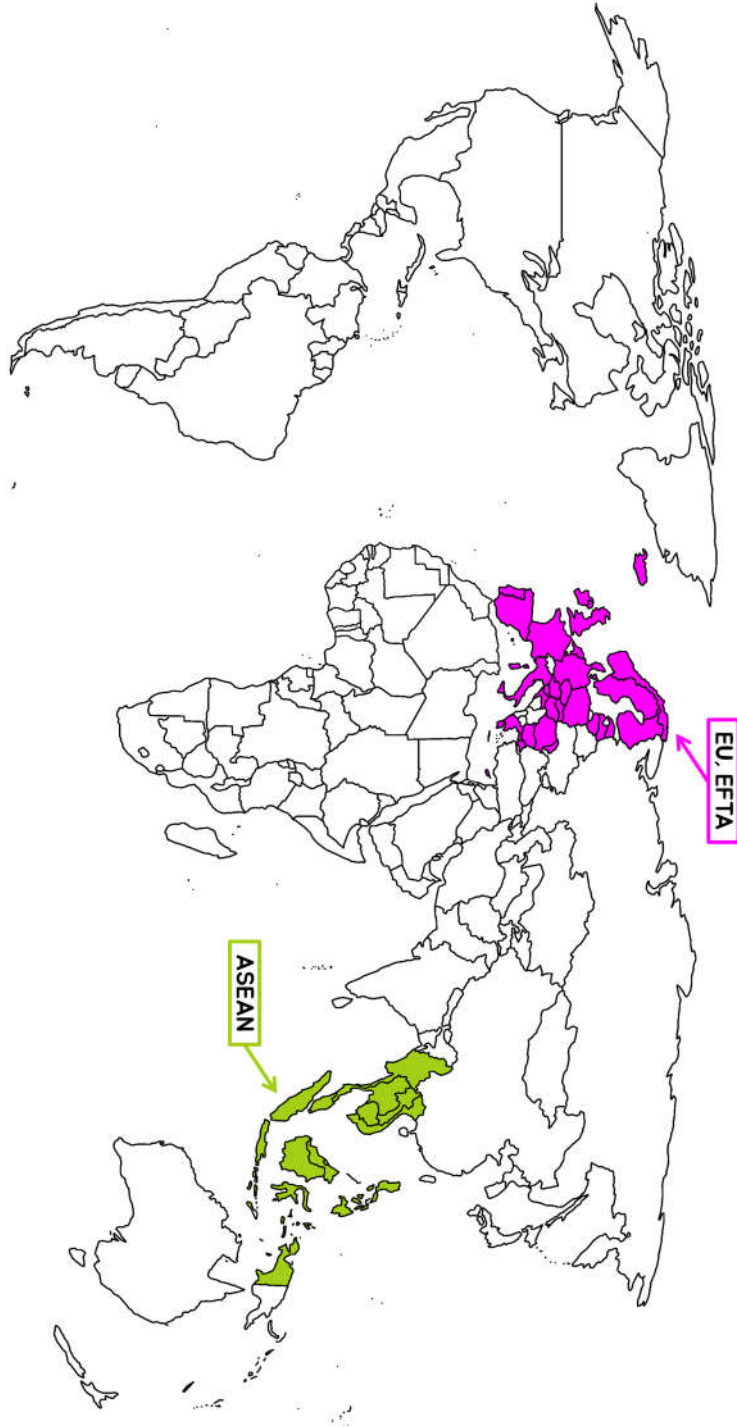
**Tip!!** 학생들이 세계지리에 익숙한 경우, 나라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지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 4) 색칠이 완성된 지도를 보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FTA를 맺어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료2: [학생용 활동지 3-1]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자료2: [학생용 활동지 3-1]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 자료3: [FTA 체결국 목록]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칠레	1999년 12월	2003년 2월	2004.4.1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년 1월	2005년 8월	2006.3.2	○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2005년 1월	2005년 12월	2006.9.1	○ 유럽시장의 교두보
 아세안 (10개국)	2005년 2월	2006년 8월 (상품협정)	2007.6.1. (국가별 상이)	○ 제2의 교역대상
 인도	2006년 3월	2009년 8월	2010.1.1	○ BRICs 국가, 거대시장
 EU (28개국)	2007년 5월	2010년 10월	2011.7.1	○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2009년 3월	2011년 3월	2011.8.1	○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미국	2006년 6월	2007년 6월	2012.3.15	○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2010년 4월	2012년 8월	2013.5.1	○ 유럽·중동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년 5월	2014년 4월	2014.12.12	○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년 7월	2014년 9월	2015.1.1	○ 북미선진시장
 중국	2012년 5월	2015년 6월	2015.12.20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뉴질랜드	2009년 6월	2015년 3월	2015.12.20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년 9월	2015년 5월	2015.12.20	○ 우리의 제4위 투자국
 콜롬비아	2009년 12월	2013년 2월	2016.07.15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2016. 7. 15일 기준)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 28개국  
: 독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10개국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명칭은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음.

출처: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FTA를 체결하니 관세율이 떨어지네!

### 준비하기

- [전개] 활동 2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4: [학생용 활동지 3-2] × 학생수
  - 자료5: [한·콜롬비아 FTA 15일 발효... 중남미 4대 시장 문 열렸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4/2016071402191.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4/2016071402191.html))
- 4인 1모듬으로 편성해 주세요.

### 수업 진행하기

1) 자료5 신문기사를 읽고 관련 질문을 통해 FTA에 대해 학습합니다.

**Tip!!** 신문기사는 화면에 출력해 전체 학생이 함께 봐도 좋습니다.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료를 출력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FTA에서 말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일까요?
  - 국가 간 상품 거래를 방해하는 장애물(무역장벽)이 없는 것입니다.
- 기사에서 FTA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기업 상품의 수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나라의 강점을 합치는 산업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FTA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 FTA란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Tip!!**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관세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하므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세금'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2) [학생용 활동지 3-2]를 나눠주고 문제를 함께 풀도록 합니다.

- <가격수준표>의 해석 요령을 설명해 주세요.
  -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격은 A입니다.
  - A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에 따라 가격수준이 변합니다.  
예) A가격에 20% 관세율을 적용하면 C가격이 됨.

- 관세율은 단순 덧셈으로 중첩 적용됩니다.  
예) B가격에 30% 관세율을 적용하면 E가격이 됨(B에 30% = A에 40%).
- 관세율이 높을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많으므로 상품 가격이 비싸집니다.

3) FTA의 의미와 효과를 정리해 주세요.

- 의미 : FTA란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 효과 : 관세가 없어지면 상대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국내 판매 가격과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해외 판매 가격이 낮아집니다.

자료4: [학생용 활동지 3-2] 한-콜롬비아 FTA 들여다보기 (앞면)

( )학년 ( )반 이름( )

□ 다음은 상품의 가격을 A라고 했을 때, 관세율에 따른 가격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가격수준표>

관세율	가격 수준
0%	A
10%	B
20%	C
30%	D
40%	E

1. 정부가 에콰도르 상품에 20%의 관세율을 책정한 경우, 가격이 A인 에콰도르 산 바나나의 국내 판매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격이 A에서 C로 오릅니다.

2. 2016년 7월 15일에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가 발효 되었습니다. FTA의 효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세요.

1) 다음 미션을 수행하고, FTA 체결 여부에 따른 커피 가격의 변화를 비교해 보세요.

< 미션 >

가. 'FTA 체결 여부'에 O, X로 표시하세요.(hint. 관세율 참고)

나. <가격 수준표>를 참고하여 커피의 '가격 변화'를 쓰세요.

품목	수출국	가격	FTA 체결 여부	관세율	가격 변화 (판매가격)
커피	콜롬비아	A	O	0%	A
	에콰도르	A	X	20%	C

2)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의 커피 소비가 늘어날 것인가?

콜롬비아산 커피

**자료4: [학생용 활동지 3-2] 한-콜롬비아 FTA 들여다보기 (뒷면)**

- 3) 한-콜롬비아 FTA 체결로 콜롬비아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 한국으로 커피 수출이 늘어나 커피 산업이 발전하고 콜롬비아 경제가 성장한다.
  - 한국 커피 시장에서 콜롬비아 커피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 한국 커피 시장에서 에콰도르 커피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3.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을 놓고 중국, 일본, 한국 자동차 회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단, FTA 체결 전 한국 자동차 관세율은 20%이다.)

품목	수출국	가격	FTA 체결 여부	관세율	관세 적용 가격 (판매가격)
자동차	중국	A	X	30%	D
	일본	B	X	20%	D
	한국	B	O	0%	B

1) 콜롬비아 국민들이 자동차 성능이 동일하여 자동차의 가격만 고려한다면 어느 나라의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겠는가?

한국산 자동차

2) FTA 체결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얻을 경제적 이익은 무엇인가?

수출 증가로 판매 수입이 늘어난다.

3) FTA 체결로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은 무엇인가?

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 자료5: [한·콜롬비아 FTA 15일 발효... 중남미 4대 시장 문 열렸다]

### 한·콜롬비아 FTA 15일 발효... 중남미 4대 시장 문 열렸다

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공식 발효된다. 한·콜롬비아 FTA는 칠레, 페루에 이어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맺는 세 번째 FTA다.

(중략) 이번 FTA 체결로 양국간 상품 교역 관세는 10년 내 모두 철폐된다. 발효 즉시 철폐 품목은 한국이 82%, 콜롬비아가 60% 수준이다. 한국이 수출하는 공산품은 95%가량이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10년 내 35%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중형 디젤 SUV 차량은 9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4일 발표한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 따른 영향과 수출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승용차의 경우 35%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5~15%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향상돼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략) FTA 체결로 양국 간 산업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콜롬비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식량자원, 커피, 화장품 산업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접목해 양국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가공기술, 마케팅 전략 등의 강점을 살리면 아시아 등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조선비즈』 2016. 7. 14.

## [정리]

# FTA로 달라진 우리 생활

## 준비하기

- [정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6: [학생용 활동지 3-3] × 학생수
  - 자료7: [FTA 10년] 동영상  
(<http://www.fta.go.kr/main/info/easy/movmedia> 에서 “FTA 10년” 검색, 6분 40초)
  - 멀티미디어 환경 구축

## 수업 진행하기

- 1) [정리]에서는 동영상을 통해 FTA의 개념과 그 효과를 정리해 봅니다.
  - Tip!!** 동영상은 총 8분 44초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 6분 40초까지만 시청한 후 활동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 2) [FTA 10년]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 동영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FTA로 인한 소비자 생활 변화
    - FTA 효과로 달라진 생산 현장
    - FTA 시대의 새로운 직종과 유망 직업
- 3) [학생용 활동지 3-3]을 배부하고 이미 알고 있던 사실과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비교해보도록 지도합니다.
- 4)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의 실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언급하고 차시를 마무리합니다.

**자료6: [학생용 활동지 3-3] FTA 10년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 )학년 ( )반 이름( )

1. 동영상 시청하면서, FTA로 달라진 소비자의 생활 모습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FTA로 달라진 모습
소비자	

2. 동영상 시청하면서, FTA로 달라진 산업 현장의 변화를 정리해 보세요.

	FTA로 달라진 모습
생산자	

3. 동영상 시청하고, FTA 시대의 새롭고 유망한 직업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나의 생각
새로운 직업	
유망 직종	

### 국제무역의 두 기둥, FTA와 지역경제블록

지구촌·세계화 등의 단어는 세계 여러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상호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을 대변한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상호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놓일 수 있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어준 요인이 있으니 다름 아닌 ‘무역’이다.

높은 통신비용과 교통비용은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다. 그런데 통신 및 교통 관련 기술 발달로 인해 컨테이너선, 초대형 화물선, 통신위성망 등이 등장하면서 무역 참여자들은 원거리에 있는 거래 상대방과 손쉽게 접촉하고 쉽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진보는 무역을 발달시킨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술진보만으로 무역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국가 간의 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한데 다름 아닌 자유무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무역 규모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한결같이 증가해 온 것만은 아니다. 일찍이 경제학자 케인즈(Keynes)는 “1914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의 교류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예언한 바 있다. 실제로 두 번의 세계대전, 1930년대의 대공황 및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보호주의는 세계무역을 침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계의 무역은 1870~1913년에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수십 년간 크게 감소하였고, 1970년까지 제 1차 세계대전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만으로는 국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며 자유무역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 2015년 4월 현재 FTA 231건에 달해

관세, 수입할당과 같은 무역장벽이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세계 경제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유례없이 높게 증가하였다. 1973년 세계 총수출은 1950년에 비해 500% 증가한 반면에 세계 경제 교역량은 200% 증가했다. 1989년의 경우 세계 총수출은 1950년 대비 1,000% 증가한 반면 세계 총생산량은 400% 증가하였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는 세계총수출은 200% 이상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총생산량은 고작 37% 증가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에 비해 교역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자유무역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무역 흐름으로는 FTA와 지역블록화를 꼽을 수 있다.

먼저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FTA 체결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각종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지역블록화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거리 FTA 체결도 늘어나고 있다.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크게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무역창출효과란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낮아져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무역전환효과란 FTA 체결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교역과 투자 등을 감소시키고 FTA 회원국 간에만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4월 기준 WTO를 통해 확인된 FTA는 총 231건에 달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체결 협정 중에서 1995년 이후에 발효된 비중이 전체의 87.5%에 해당한다.

### 경제의존도 높은 국가들 간 경제블록 형성

국제 무역의 흐름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역블록화를 꼽을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 증진을 위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지역경제블록화’라고 한다. 쉽게 말해 ‘특정지역 내 자유무역경제권’을 의미한다. 경제블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 간의 관세 인하 등 무역 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이익을 증대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통합을 통해 무역창출, 투자유인 등의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안보문제, 즉 국가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 1980년대 이후 GATT를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를 추진 하였으나 회원국 간의 이해 대립이 발생하여 실패한 후,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인접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 실현 움직임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 지역경제블록화다. 1990년대는 지역주의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경제 통합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었다면, 최근에는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별로 경제 블록화를 만들게 되면 무역 자유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약소국들이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회원국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행동으로 인해 비회원국이 국제 거래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무역마찰을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 협정이다.

####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는 GATT에 비해 보다 강력한 기구로, GATT체제가 포괄하지 못했던 서비스교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역 관련 분쟁해결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박정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click 경제교육』 2015년 7월호

## 공정한 커피의 향기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근심을 없애고 기분을 좋게 한다. 칼럼니스트 마크 펜더그라스트(Mark Pen dergrast)는 “커피가 확실히 알코올 소비량을 줄였다”고 주장할 정도로 커피는 매력적이다. 심지어 그는 “카페들이 프랑스 혁명을 잉태하는 배양지 구실을 했다”고 했는데, 당시 유럽 대륙의 커피하우스는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커피가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fair-trade)과 더 잘 어울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약 200년 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는 한 나라가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는 반드시 존재하며, 해당 재화를 특화하여 교역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했다(1871). 여기에 그 누구의 강요도 필요없다. 비교우위론에 따른 자발적 거래는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거래하기 위해 안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느 누구의 만족도 감소하지 않고 모두 더 행복해지는 것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경제가 효율적인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이 아름다운 이유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유무역으로 100이 증가했는데, 한 쪽이 1을 가져가고 다른 한 쪽은 99를 가져갔다던? 기여도와 생산능력에 따라 이익이 배분된 것이라면 1을 가져간 쪽도 손해 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1은 너무 적다. 그 정도 배분으로는 거래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들의 자녀들은 학교 대신 농장으로 나가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1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그래도 여전히 서로 이익이 창출되었으니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이 싫다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재화를 생산하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쁜 건강상태와 낮은 교육수준이 인적자본의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구조적으로 지속된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가? 1을 가져가는 사람이 제3세계 사람들이고, 99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선진국이라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포함된 ‘공정’이라는 단어가 무역 앞에 붙게 되는 이유다.

### 농부 데이비드는 얼마를 벌까?

커피는 남반구의 태양 아래서만 자랄 수 있는 풍토성이 강한 작물이다. 향기로운 커피는 남반구 농부의 땀과 정성이 녹아있다. 케냐의 소농 데이비드 가치기는 1파운드 커피를 2~10센트에 판다. 이웃인 헨리는 1파운드에 2센트를 받고 커피를 팔지만, 자신이 판 커피가 로스팅을 거쳐 7달러에 판매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1파운드 커피 생두는 약 45잔의 커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커피 1잔이 약 4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농부가 10센트에 판 커피 생두는 180달러의 근사한 음료가 된다. 180달러의 커피에서 농부가 가져간 몫은 0.05%일 뿐이다. 커피 생두가 너무 낮은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남반구 소농인 데이비드는 학교를 5년도 채

다녀지 못했다. 그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커피농사 기술뿐이다.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커피농사가 힘들다고 다른 일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공정무역은 이러한 소농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최저가격'을 보장해주기 위해 생겨났다. 농민에게 생산의 몫을 더 많이 보장해 주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FLO(Fairtrade Labeling Organization,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다. FLO는 공정무역 인증기준과 감시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준수한 원두에 공정무역 마크를 부착한다. 공정무역 원두는 '최저가격+프리미엄'을 받고 소매업자에게 판매된다.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가격은 농부에게 돌아가며, 프리미엄은 의료와 교육 등 지역사회 발전에 쓰인다(20~21쪽 인포그래픽 참조). 세계 최고급 원두를 판매하는 스템프타운 커피 로스터드의 운영 책임자인 맷 라운즈베리에 따르면 "공정무역커피는 대개 1파운드에 1달러 50센트 정도에 팔리고, 가공을 거쳐 북미에서는 12~13달러에 팔린다"고 한다.

### 효율성이 아닌 공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분명한 것은 공정무역이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움직임이라는 점이다. 최저 가격제도는 만성적인 초과공급을 초래하며, 더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에서 추구하는 효율성의 관점이 아니라 공정성의 관점에서 등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본이 없어 대규모 투자는 물론이고 재투자마저 원활하지 않은 이들에게 정글과 같은 시장은 너무 가혹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고, 신용대출 통해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한 농업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어떤가? 이들은 자신이 만든 생두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읽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중요한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대응할 능력이 없다. 이들에게 교육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활용하려면 질병의 통제를 통한 신체적 건강은 필수적 요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아니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건강한 생활과 좋은 교육의 기회를 공정무역을 통해 남반구의 소농에게 주고 싶은 것이다.

공정무역의 성공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첫째, 비영리기구인 공정 무역 단체들이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공정무역 마크를 붙여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원두를 공급한다. 소비자들이 비싼 공정무역 마크가 붙은 원두를 소비하는 이유는 소농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중개상의 역할을 하는 공정무역 단체가 부패할 경우, 소비자의 선한 마음이 엉뚱한 곳에 전해진다. 따라서 이들은 기관의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더 중요한 열쇠는 소비자의 의지다. 공정무역은 최저가격제도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이 적다. 시장경제 하에서는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커피를 더 선호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초과공급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이제 윤리적 커피를 마시기 위해 공정의 향기를 찾아가는 소비자가 되는 것은 어떤가?

차성훈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click 경제교육』 2015년 6월호

중등 4차시

# 환율 변동으로 울고 웃는 사람 :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이야기



## □ 학습목표

- 환율의 개념을 알 수 있다.
-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개인과 사회차원에서 알 수 있다.

## □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게임 자료

## □ 수업내용 구성

주요개념	교환의 이득, 무역		
심화개념	비교우위		
교육단계	지도 방식	지도 내용	유의점 · 준비물
도입 (5분)	활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의 다양한 화폐의 사용 지역과 화폐 이름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4-1]</li> </ul>
전개 (35분)	활동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화를 통해 환율이라는 개념이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학습</li> <li>• 환율의 개념 강의</li> <li>• 환율의 결정과 변동 강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4-2]</li> </ul>
	활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이야기 게임을 통해 환율 변동의 영향을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4-3]</li> <li>• [게임 자료]</li> <li>• 게임 규칙을 확실히 이해했음을 확인 한 후 진행</li> </ul>
정리 (5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 상승/하락에 따라 입장이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을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4-4]</li> </ul>

## [도입] 활동 1

# 세계의 각 나라는 사용하는 돈이 달라요

### 준비하기

- [도입] 활동 1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1: [학생용 활동지 4-1] × 학생수
  - 자료2: [여러 나라의 화폐]
- [여러 나라의 화폐]는 각 화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수업 진행하기

- 1) 스마트폰 회사 사장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원자재, 부품 등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사용 화폐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유도합니다.
- 2) 세계 각 지역의 화폐가 어느 지역의 화폐이며 화폐의 단위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찾아봅니다. 이로써, 무역에서 기준이 되는 화폐가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Tip!!** <보기>에서 힌트를 얻어 세계 각 지역 화폐 이미지와 사용지역 및 화폐 단위를 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세계 각 지역과 거래를 할 때, 화폐가 서로 달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준이 되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경제규모가 크고, 신용 있는 지역의 화폐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현재,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외국과 교역을 할 때,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가 기준이 되지요. 외국과 교역할 때, 미국달러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신용 있는 외화가 쓰일 수 있어요. 미국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국제결제 화폐로 사용됩니다.

**자료1: [학생용 활동지 4-1] 세계의 각 지역은 쓰는 돈이 달라요**

다음 화폐는 어느 나라(지역)에서 사용하는지, 단위는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보기>

- \*미국 달러
- \*영국 파운드
- \*일본 엔
- \*이집트 파운드
-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 \*유럽 유로
- \*중국 위안
-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 세계 각 국가(지역)의 화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위인, 건축물, 유적, 동물 등을 모델로 합니다.

□ 세계 각 나라와 거래를 할 때,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료2: [여러 나라의 화폐]



미국 화폐 단위는 미국 달러(\$)이며, 보조 화폐는 센트(¢)입니다. 센트는 동전으로, 달러는 지폐로 발행됩니다. 100센트는 1달러입니다. 1, 5, 10, 20, 50, 100달러권이 많이 사용됩니다. 2달러 권은 현재 발행하지는 않는데,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속설로 수집용으로 사용됩니다. 왼쪽 지폐는 5달러 권으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16대 대통령 링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 화폐 단위는 이집트 파운드(£E, 아랍어로는 '기니')이며, 보조화폐는 피아스토르(pt, 아랍어로 아르슈 또는 사아)입니다. 피아스토르는 동전으로, 이집트 파운드는 지폐로 발행됩니다. 왼쪽의 지폐는 100이집트 파운드 권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의 �핑크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화폐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는 위안[元]·지아오[角]·펀[分]의 세 종류가 있는데, 1위안은 10지아오, 100펀에 해당합니다. 1948년 12월 중국정부 수립후 허베이은행[華北銀行]을 모체로 각 해방구에 흩어져 있던 중국공산당계 발권은행을 합병하여 개설한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왼쪽 지폐는 마오쩌둥(모택동) 두상이 그려져 있는 100위안권입니다.



호주 화폐는 호주 달러(AUD)라고 부르며 기호는 A\$입니다. 보조 화폐는 센트(¢)인데 ¢1, ¢2는 유통되지 않고 ¢5로 반올림해서 사용합니다. 지폐는 5, 10, 20, 50, 100 호주달러권이 통용됩니다. 왼쪽 지폐는 10 호주달러 권으로, 호주의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인 앤드류 바튼 반조 피터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유럽 연합 결성 후 회원국은 각국 간에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나라 간 무역 등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로(EUR, €)와 보조화폐 유로센트를 사용합니다. 지폐는 5, 10, 20, 50, 100, 200유로권이 통용됩니다. 왼쪽 지폐는 200유로권으로 근대 건축양식이 디자인 모티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리알(아랍어: ريال)을 사용합니다. 1 미국 달러 = 3.75 리알로 고정 환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폐는 1, 5, 10, 50, 100, 500 리알권이 통용됩니다. 왼쪽 지폐는 50리알권으로 중앙에 파우드 빈 압두 알 아지스(1922-2005) 국왕의 모습이 보이고, 왼쪽에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바위의 돐이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파운드화를 사용합니다. 파운드(pound)와 보조 화폐단위로 펜스(pence)를 사용합니다. 과거 영국에서 은의 질량을 파운드로 측정해 화폐로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지폐는 5, 10, 20, 50파운드권이 통용됩니다. 모든 지폐의 앞면에 엘리자베스 2세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왼쪽 지폐는 5파운드권입니다.



일본에서는 엔화를 사용합니다. ¥ 또는 Y로 표시합니다. 지폐는 1000, 2000, 5000, 10000엔권이 통용됩니다. 왼쪽 지폐는 10000엔권으로 일본개화기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그는 메이지유신의 공로자이고, 게이오대학과 산케이신문 창설자입니다.

## 여러 나라로 나누자! 우리 모듬은 어느 나라지?

### 준비하기

- [전개] 활동 2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3: [학생용 활동지 4-2] × 학생수

### 수업 진행하기

- 1) 선생님은 학생들과 [학생용 활동지 4-2]의 만화를 함께 읽어 보고, 주인공에게 영향을 준 경제 상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 환율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과 관련된 용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2) 환율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면, ‘환율’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는지 학생들에게 물으며 관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 3) [학생용 활동지 4-2]의 서술 방식에 맞추어 환율의 필요성과 개념을 강의합니다.
- 4) 환율이 결정되고 변동하는 원리를 재화의 가격의 변동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환율의 상승과 하락의 의미를 원화 가치의 상승과 하락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3: [학생용 활동지 4-2] 환율이 뭐길래 (앞면)

( )학년 ( )반 이름( )

□ 중학생 지수에게 무슨 걱정이 있나 보네요. 만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지수를 한숨 쉬게 만든 경제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 환율의 상승

✎ 유학 중인 언니가 있는 지수에게 환율의 상승이 불리하게 작용한 이유는 무엇일지 추측해 봅시다.


- 환율이 상승하면서 언니에게 송금할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음.

☆ 1,000원이면 1달러와 교환이 가능하던 것이, 환율이 상승하여 1,500원과 1달러를 교환하게 된다면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달러짜리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전에는 10,000원이면 되던 것이 환율이 상승하고 난 후에는 15,000원을 내야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자료3: [학생용 활동지 4-2] 환율이 뭐길래 (뒷면)


□ 환율이 뭐길래?

대체 환율이 뭐길래 지수가 저렇게 한숨을 쉬고 있을까요? 환율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때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었지요? 다른 신용 있는 화폐도 국제거래에 사용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국과 교역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겠지요? 우리나라 돈인 원화를 주고 필요한 달러를 살 때, 두 화폐를 바꾸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의 개념을 정리해봅시다.

□ 사과가격이 변하듯 환율도!

사과의 공급에는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사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달러를 찾는 쪽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올라요. 이런 식으로 환율은 변화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는, 매일 '오늘의 환율'이 나와요. 한 번 찾아보세요. 매일 변화하는 환율을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도 알 수 있답니다.

 알맞은 표현에 ○해 봅시다.

\$1=W1,000에서 \$1=W2,000으로 변할 때 이를 환율의 (상승) 하락)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 하락)한 것이지요. \$1=W1,000에서 \$1 =W700으로 변할 때는 환율의 (상승, 하락)이라고 하며, 이 때 원화 가치는 (상승) 하락)한 것입니다.

□ 두 남매에게 환율 상승의 영향은?

앞의 만화에서 지수에게는 유학생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해봐요. 부모님은 우리나라 회사원으로, 월 소득을 원화로 받고요. 언니의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0라고 할 때, 환율이 \$1=W1,000에서 \$1=W2,000로 오르게 되면 부모님이 언니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환율 변동	달러 표시 유학비용	원화 환산 유학비용
\$1=W1,000	5,000달러	5,000,000원
\$1=W2,000	5,000달러	10,000,000원

##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게임

### 준비하기

- [전개] 활동 3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4: [학생용 활동지 4-3] × 학생수
  - 자료5: [정답표] × 모둠수
  - 자료6: [보드게임판] × 모둠수
  - 자료7: [상황카드] × 모둠수
  - 자료8: [유리·불리·불확실 스티커 세트] × 모둠별 20개
  - 자료9: [게임말] × 모둠수
  - 자료10: [주사위] × 모둠수
- 3~4인(최대 4인) 1모둠으로 편성해주세요.

### 수업 진행하기

- 1) [학생용 활동지 4-3]의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이야기를 함께 읽고 환율의 변동에 따라 유리해지는 쪽과 불리해지는 쪽이 공존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 2) 환율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업자는 유리해지고, 수입업자는 불리해짐을 이해합니다. 기계적인 암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상황도 함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환율상승 시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는 유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주요부품을 수입에 의존한다면 반드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환율변동과 화폐가치의 변동이 혼동되지 않도록 확인시켜줍니다.
  - 환율 상승 = 원화가치 하락, 환율하락 = 원화가치 상승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 게임 규칙을 설명합니다. 모둠원 중 1명은 심판 역할을 합니다.
  - 심판은 게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른 모둠원들이 게임을 진행하며 선택을 하면 [정답표]를 보고 확인해 해당하는 스티커를 부여합니다.

#### 자료4: [학생용 활동지 4-3]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게임 (앞면)

( )학년 ( )반 이름( )

#####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이야기>

우산장수 큰 아들과 나막신장수 작은 아들을 둔 어머니가 비가 오면 작은 아들 걱정, 해가 나면 큰 아들 걱정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환율 변동도 이처럼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동시에 있게 마련이에요. 환율상승이 지수네 집에는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지용이네 집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네요.

☐ 환율이 상승하자 언니의 유학비 부담에 지수의 용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미국에 의류를 수출하시는 친구 지용이네는 환율 상승에 오히려 형편이 넉넉해졌는지 뭐예요?

- 우리나라에서 2만 원하는 티셔츠를 미국으로 수출해서 달러로 표시해서 판다고 가정합니다. 환율이 \$1=W1,000에서 \$1=W2,000로 오른 상황이라 할 때, 티셔츠의 달러표시가격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관세나 운송비 등의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	원화 표시 의류 가격	미국에서 달러표시 가격
\$1=W1,000	20,000원	( 20 )달러
\$1=W2,000	20,000원	( 10 )달러

☞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을 하는 지용이네는 오히려 형편이 좋아졌나봅니다.

하지만 모든 수출업자들이 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가 그 제품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생산단가 자체가 비싸질 테니까요.

#### 자료4: [학생용 활동지 4-3]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게임 (뒷면)

#####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게임 준비>

- 먼저 모둠별로 앉습니다.
- 보드게임판 오려서 가운데에 놓습니다.
- 상황카드를 보드게임판 옆에 뒤집어 놓습니다.
- 캐릭터 말을 오려 하나씩 선택합니다.
- 주사위를 준비합니다.

#####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게임 규칙>

- 게임 참여자는 각자의 출발 지점을 선택합니다.
- 상황카드를 뒤집고, 주사위를 굴립니다.
-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만큼 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도착지에 있는 역할이 자신이 뽑은 상황카드에서 유리한 경우 스마일 스티커 +1점을, 불리한 경우 슬픈 감정 스티커 -1점을, 불확실할 경우 불확실 스티커 0점을 획득합니다.
- 5점을 가장 먼저 획득한 사람이 우승자입니다.
- 게임판에 적힌 모든 사람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경제주체임을 가정합니다.
- ※ 자신이 뽑은 상황카드와 주사위 숫자를 보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 좋을지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 말은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 ※ 심판은 게임 참여자가 선택한 상황카드 하에서 도착한 곳의 역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답표]를 보고 확인한 후 스티커를 주고 점수를 기록합니다.
- 상황카드를 뽑고 자신이 도착한 곳의 역할의 사람의 상황에 따라 유리, 불리, 불확실 스티커를 획득합니다.



스마일 스티커 +1점  
(유리한 경우)






슬픈 감정 스티커 -1점  
(불리한 경우)



불확실 스티커 0점  
(유불리 예측이 어려운 경우)

자료5: [정답표]

	관용 상승	관용 하락	원회거시 상승	원회거시 하락
<p><b>우리는 좋은 사람</b></p>  <p>우리는 좋은 사람 매우 높음 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업자</li> <li>주요부품 생산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업자</li> <li>주요부품 생산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업자</li> <li>주요부품 생산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업자</li> <li>주요부품 생산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업자</li> </ul>
<p><b>우리는 나쁜 사람</b></p>  <p>우리는 나쁜 사람 -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업자</li> <li>실비투자를 위해 미국기계가 필요한 기업</li> <li>미국 여행을 가려는 대학생</li> <li>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학비를 송금하는 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업자</li> <li>손뜨개 옷을 온라인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 중인 공방주인</li> <li>미국 여행에서 남겨온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고 하는 대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업자</li> <li>손뜨개 옷을 온라인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 중인 공방주인</li> <li>미국 여행에서 남겨온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고 하는 대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업자</li> <li>실비투자를 위해 미국기계가 필요한 기업</li> <li>미국 여행을 가려는 대학생</li> <li>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학비를 송금하는 공무원</li> </ul>
<p><b>우리는 나쁜 사람</b></p>  <p>우리는 나쁜 사람 +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업자</li> <li>손뜨개 옷을 온라인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 중인 공방주인</li> <li>미국 여행에서 남겨온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고 하는 대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업자</li> <li>실비투자를 위해 미국기계가 필요한 기업</li> <li>미국 여행을 가려는 대학생</li> <li>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학비를 송금하는 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업자</li> <li>실비투자를 위해 미국기계가 필요한 기업</li> <li>미국 여행을 가려는 대학생</li> <li>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학비를 송금하는 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업자</li> <li>손뜨개 옷을 온라인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 중인 공방주인</li> <li>미국 여행에서 남겨온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고 하는 대학생</li> </ul>

자료6: [보드게임판]

▼참가자1						◀참가자4
수출업자	수입업자	설비투자를 위해 미국기계가 필요한 기업	수출업자	손뜨개 옷을 온라인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 중인 공방 주인	수입업자	
주요부품 생산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업자	설비투자를 위해 미국기계가 필요한 기업	수출업자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학비를 송금하는 공무원	수입업자	손뜨개 옷을 온라인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 중인 공방 주인	
수출업자	미국여행을 가려는 대학생	미국여행에서 남겨 온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고 하는 대학생	수입업자	주요부품 생산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손뜨개 옷을 온라인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 중인 공방 주인	수입업자	손뜨개 옷을 온라인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 중인 공방 주인	설비투자를 위해 미국기계가 필요한 기업	미국여행을 가려는 대학생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학비를 송금하는 공무원	수출업자	미국여행에서 남겨 온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고 하는 대학생	수출업자	미국여행을 가려는 대학생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학비를 송금하는 공무원	
▶참가자2	손뜨개 옷을 온라인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 중인 공방 주인	설비투자를 위해 미국기계가 필요한 기업	수출업자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학비를 송금하는 공무원	미국여행에서 남겨 온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고 하는 대학생	주요부품 생산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업자
						▲참가자3

자료7: [상황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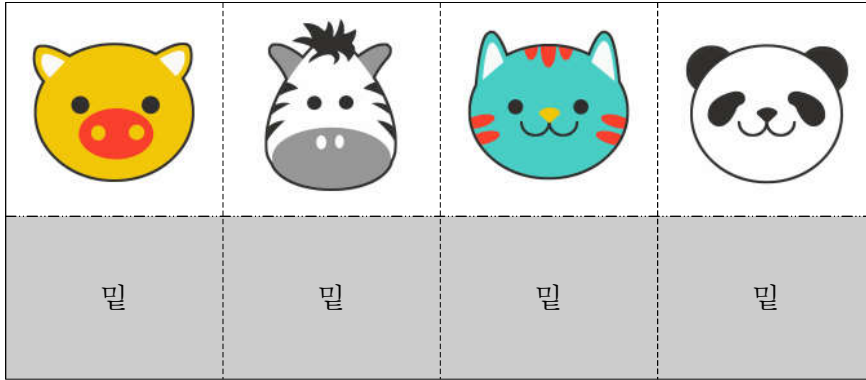


자료8: [유리·불리·불확실 스티커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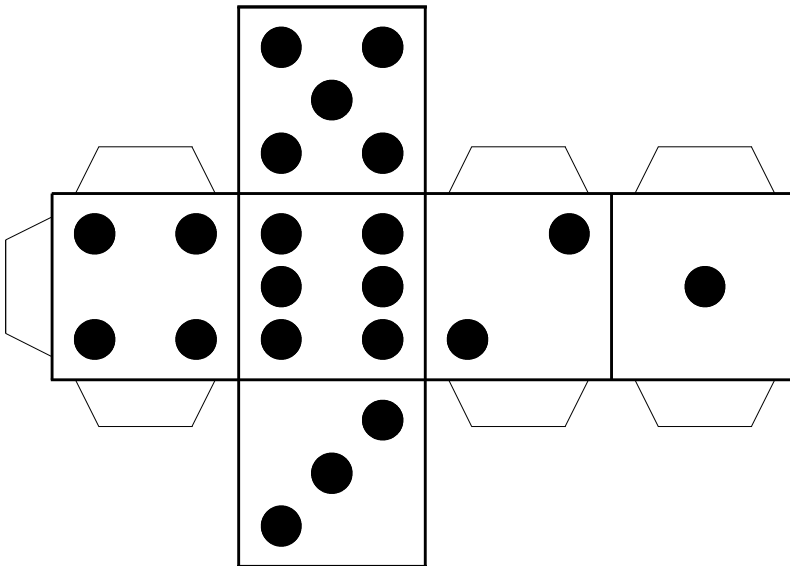


자료9: [게임 말]

----- 접기 / ✂ ----- 자르기



자료10: [주사위]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이야기: 점수 기록 예시>

※ 스마일 스티커 획득 시 +1점, 슬픈 감정스티커 획득 시 -1점,  
불확실 스티커 획득 시 0점으로 기록해, 5점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우승자입니다.

이름	점수												
지수	1	0	1	1	0	1	1						
지환	0	0	-1	1	0	1							
민수	1	0	0	1	1	1							
민희	0	-1	1	1	0	0							
가은	-1	0	1	1	1	0	0						
문경	1	1	0	0	1	1	0						

→ 지수 5점 획득으로 우승

## [정리]

# 환율 변동으로 울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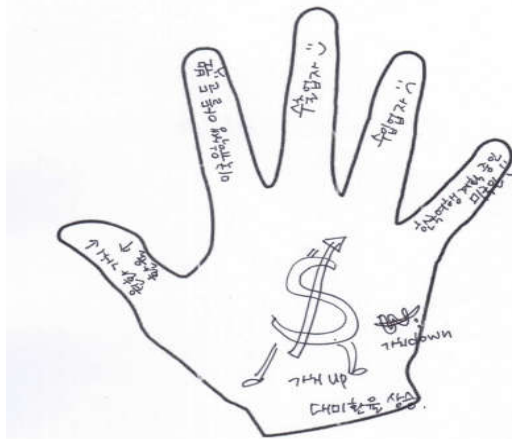
## 준비하기

- [정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11: [학생용 활동지 4-4] × 학생수

## 수업 진행하기

- 1) 환율의 개념과 환율변동의 이익과 손해를 정리합니다.
  -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한 측면만 있을 수 없음을 알도록 합니다.
  - 모든 사람이 유리할 수 없는 것이, 사회 전체로 볼 때 우산 장수와 나막신장수 어머니와 같은 측면임을 알도록 합니다.
- 2) 수업을 통해 알게 된 환율 변동에 따라 유리해지는 쪽과 불리해지는 쪽을 비주얼 씽킹을 통해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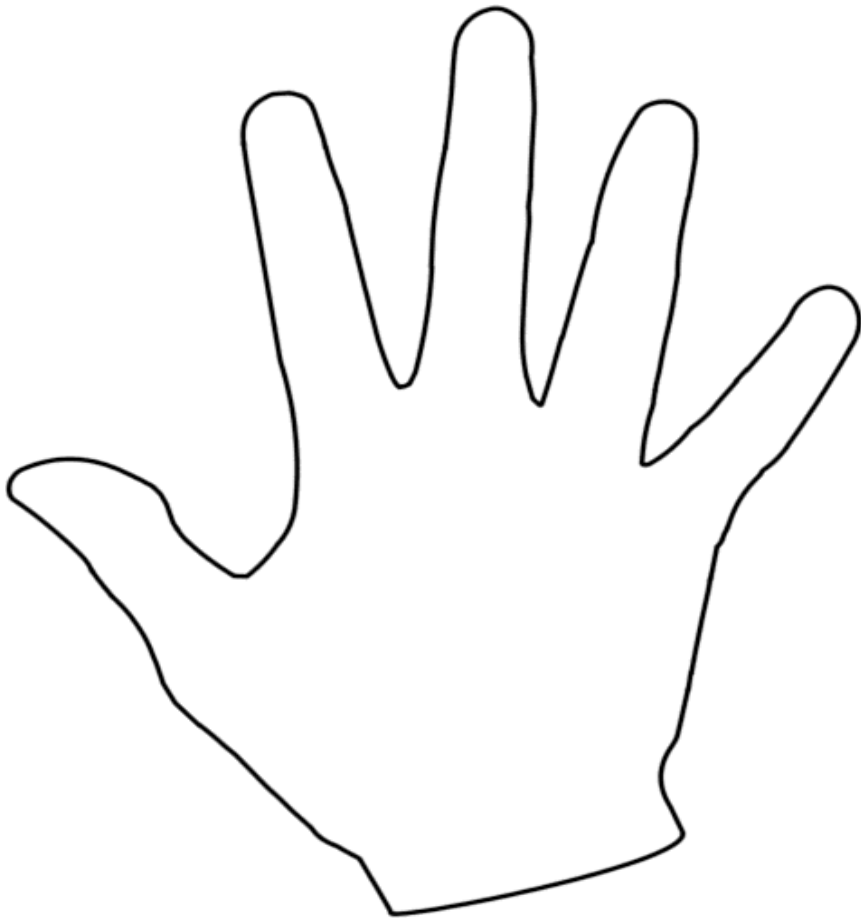
**자료11: [학생용 활동지 4-4] 비주얼 씽킹**

( )학년 ( )반 이름( )

**< 환율 변동의 영향은? : 게임을 회상해보기 >**

비주얼 씽킹 활동 방법 : 비주얼 씽킹은 생각을 담은 그림 그리기 활동입니다. 손가락 끝에 이미지와 설명을 혼합하여 환율이 상승했을 때,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을 표현해봅시다.

- 환율이 상승했을 때, 어떤 사람이 유리해지고 어떤 사람이 불리해지는지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해 봅시다.



### 환율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환율과 국제수지에 대한 글을 쓰거나 수업을 하면 필자의 군대 시절 경험을 꼭 이야기하게 된다. 사실 환율과 국제수지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감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필자는 약간은 특수한 군대에 있었던 연유로 환율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몸으로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필자가 근무했던 부대는 주한미군의 조차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서 조차지란 외국에 빌려준 영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곳은 우리 영토이지만 미국법이 적용되고 거래되면서 화폐도 달러가 기준이 되었다. 군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함께 있어서 영내에는 학교도 있고 버거킹이나 파파이스도 있으며, 상품의 가격은 모두 달러로 쓰여 있다. 이곳에서 카드를 쓰면 휴대폰으로 해외사용분이라고 알림 문자가 뜬다. 한마디로 한국 속에 조그만 미국 소도시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 환율 따라 움직이는 소비

필자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은 IMF 외환위기가 한참이던 시절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800원하던 때에는 한국군들이 주한미군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내의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많이 사먹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달러 조금 넘어가는 햄버거 하나를 2,000원 정도에 사먹을 수 있었다. 이를 국제수지와 관련시켜 설명하자면 한국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버거킹 햄버거를 먹은 것이다.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오면서 한국군들이 미국 버거킹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2,000원이면 사먹을 수 있었던 미국 햄버거가 월급도 그대로이고 메뉴판의 가격도 그대로인데, 오직 환율만 변했을 뿐인데 내가 지불해야 할 돈은 5,000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한국군들은 모두 부대 문밖에 있는 한국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사 먹기 시작했다. 국제수지 차원에서 따지자면 미국에서 수입해 먹던 햄버거를 환율이 상승하자 국내산 햄버거로 소비처를 바꾼 것이다.

소비 행태가 바뀐 것은 한국군만이 아니었다. 주한미군들도 자기들이 달러로 받은 월급을 원화로 바꿔서 한국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사먹었다. 과거에는 2달러면 한국 돈 1,600원으로 바꿔주었지만, 외환위기가 오자 4,000원으로 돈 가치가 높아졌다. 물론 메뉴판의 가격은 그대로였다. 주한미군들은 한국 돈에 비해 높아진 달러의 가치를 즐기며 미국 영토인 부대의 문밖을 나가 한국 땅에서 햄버거도 사먹고 즐거운 쇼핑을 하였다.

이런 경제 현상을 눈으로 직접 본 탓에 원엔 환율이 높아지면 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이 많아지는지도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은 엔저 현상으로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서울 명동의 상인들을 다룬 기사이다.

위 기사에서 엔저가 일본 경제에 좋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이 줄어들니 일본 입장에서 경상수지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연유로든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일본인에게는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득이 엔화로 들어오는 사람은 한국에 살면서 가격표는 그대로임에도 환율 때문에 물가가 치솟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일까? 모든 경제 현상은 기본적인 시장 원리만 이해해도 절반 이상을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돈과 외국돈의 교환원리도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돌아간다.

만약 미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잘되어 우리나라에 달러가 흔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가령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원화로 표시되는 미국 1달러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이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달러가 흔해졌기 때문이다.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다.

### 화폐가치와 국제수지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하나 생기게 된다. 한 나라의 경제가 건실하고 안정적이면 그 나라의 화폐가치가 올라가지만 그것이 현실 경제에서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라의 경제 체력이 튼튼해지면 돈 가치가 올라가게 되지만, 역설적이게도 되도록 돈의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국제수지에는 꽤 많은 이점이 있다. 그래서 국가 사이에는 환율의 결정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에 환율 하락을 두고 견해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적정환율이라는 것은 계산하기 어렵지만 두 국가 사이에 환율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결국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돈이 저평가되어 수출에는 유리하고 수입에는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 미국이 환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더 고평가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아직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돌아가지만 정부당국이 개입할 여지도 많이 있다. 그래서 국가 사이에 환율의 결정을 두고 전쟁처럼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자국 화폐의 가치를 되도록 낮게 유지하려는 국가들이 외환시장에서 만나게 되면 심각한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제 주체들은 가격이라는 신호에 맞춰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데, 화폐가 다른 국가 사이의 상품 가격에는 환율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는 상품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변수가 끼어들어 나타나는 4중주의 하모니 같은 것이다.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면 세계화 시대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환율과 국제수지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전대원 진건고 교사

『click 경제교육』 2013년 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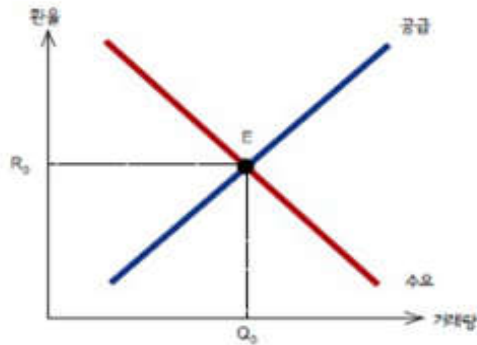
### 환율의 결정에 대한 이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상품의 균형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외화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 결과가 환율이다. 국제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상대 국가의 통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특히 많은 교역이 경제대국의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국가의 통화는 세계 시장에서 중심 통화가 될 것이다.

각국의 대외거래는 비단 상품을 사고파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이제는 상품교역 못지않게 금융거래가 크게 늘었고 이러한 금융거래가 일국의 국제거래의 결과인 국제수지를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 환율의 결정

수요와 공급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게 환율의 결정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그림>과 같다면, 누구나 균형환율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E점에서 결정되리라고 볼 것이다.



<그림> 환율의 결정

외화의 수요와 공급은 국제 거래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이면, 10달러하는 미국산 휴대폰을 1,000개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1,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이 되면 동일한 물건을 수입하는 데 1,4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환율이 오르면 수입 상품의 국내 표시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그 상품의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수입이 줄면 당연히 수입업자가 외환시장에서 필요로 할 달러의 양도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수요곡선은 환율이 오를수록 외화수요가 줄어들고 환율이 낮아질수록 외화수요가 증가하는 우하향의 모습을 갖게 된다.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더 수월해졌다. 휴대폰을 수출하는 수출업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를 경우, 생산원가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환율의 상승으로 수출업자는 더 경쟁력을 갖게 된다.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 휴대폰을 10달러가 아니라 그보다 적은 가격으로 팔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미국의 휴대폰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달러를 외환시장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구매력 평가설

환율의 결정과 변화 과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리가 국내시장에서 배웠던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시장에 적용한 것이 구매력 평가설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동일한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상품이 다른 가격으로 팔린다면 중개인들은 지역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격은 균등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구매력 평가설은 두 나라의 물가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환율이 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완전히 동질적이고 세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이 두 나라밖에 없으며 자동차는 양국의 여러 생산물 중 유일한 무역상품이라고 하자(이 예는 조순 외, 『경제학원론』 (제7판), p. 800에서 인용함.)

만일 미국의 자동차가 1대당 1만 달러이고 한국의 자동차가 1,200만 원이면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1,200만 원은 1만 달러와 같아야 하므로 1달러는 1,200원의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만일 1달러가 1,000원의 가치를 지니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면 한국의 자동차는 1대당 1만 2천 달러의 가격을 받는 셈이다.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한 대 가격은 1만 달러이므로 모든 소비자들은 미국산 자동차만을 구입할 것이다. 반면 1달러의 가치가 1,400원의 가치를 지니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환율은 결국 1달러 당 1,200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위의 예는 환율이 양국 간의 물가수준의 비로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구매력 평가설은 어느 시점의 환율을 나타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위의 예에서 만약 5년간 미국의 물가는 40%, 한국은 200%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자.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원화가 달러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산 자동차는 한 대에 1만 4천 달러, 한국산자동차는 2,400만 원이 됐다. 그런데 이 두 가격은 같아야하므로 1달러는 1,714원의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환율과 국제수지

국가 간 거래는 상품 수출입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의 수출입도 포함한다. 상품과 자본의 수출입을 모두 정리한 표를 국제수지라고 한다.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도 국내 기업이 투자를 위해 외국에 더 많은 달러를 내 갔다면 국제수지는 적자로 표현된다.

국제무역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국제수지가 적자를 지속한다면 무역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계속 빌려와야 하기 때문에 국제수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에는 국제수지가 불균형을 이루어도

가격기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출을 전환하기 위한 환율 정책으로 제한하도록 하자. 지출을 전환한다는 것은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이 수입을 포함한 해외부문의 지출의 과다에 있다고 보고 이 지출을 국내 상품으로 돌려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입 규제, 관세, 환율 등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환율을 이용한 국제수지의 개선은 환율을 올려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외환의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환율을 올리는 평가절하 정책을 쓴다해도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단기기간에는 국제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물론 평가절하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수입을 포함한 해외부문과 국내 소비, 투자 등의 지출 규모가 큰 데에 기인하므로 지출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실장  
『click 경제교육』 2013년 12월호

### 환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환율이란 무엇인가? 환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은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율로 '두 화폐의 교환비율'로 정의된다. 만약 환율이 원/달러로 정의되었을 경우 환율의 상승은 국내 통화가치의 하락(원화의 평가절하), 달러 통화가치의 상승(달러의 평가절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환율은 교환비율만을 나타낼 뿐, 서로 다른 국가 간 제품경쟁력을 측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을, 실효환율은 명목·실질환율을 보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이폰(달러 표시)과 한국의 갤럭시폰(원화 표시) 간의 제품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이 둘 간의 가격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통화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명목환율(S)이 원/달러로 표시되었다면 두 제품 간의 가격비교는 'S × 아이폰가격 ÷ 갤럭시폰가격'의 형태로 변환시킴으로써 동일통화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질환율은 하나의 제품가격을 사용하지는 않고 전체 물가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위 휴대폰가격의 예에서 실질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일통화로 환산했을 때 해외제품가격이 국내제품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제품의 국제경쟁력이 개선되어 경상수지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의 두 사례에서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은 두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들로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이 있다. 이들 실효환율(effective exchange rate)의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와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가중치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환율의 변화를 한꺼번에 살펴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실효환율은 여러 가지 이국(異國) 간 환율(예: 원/달러, 원/엔, 원/위안)에 무역가중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국내통화를 분모로 일원화시켜 계산된다.

#### 환율결정모형: 단기 이자율평형조건과 장기 구매력평가이론

환율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은 매우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다. 경제학에서 단기와 장기는 물가의 변화여부에 의해서 구분된다. 이는 물가가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따라 주요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격의 경직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계약에 의한 가격의 경직성(예: 임금계약은 1년에 한 번씩 갱신), 정보인식의 시차 등이 있다.

환율가격 결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단기이론으로는 이자율평형조건(interest parity condition)이 있다. 이자율평형조건은 국내에 투자를 하던 해외에 투자를 하던 두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같아지게 만드는 조건을 나타낸다. 즉, 화폐의 수요·공급에 의해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 환율은 하락(국내통화 절상), 해외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 환율은 상승(국내통화 절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 해외투자자들의 국내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국내에서 해외통화의 공급이 증가하고 국내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결국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고(원화의 평가절상) 해외통화의 가치는 하락(해외통화의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이다.

단,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의 양적완화 정책(제로금리 상태에서 통화량 증가 정책)은 이자율평형조건 모형을 이용해서는 설명이 안 되며, 일반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달러공급의 증가는 달러의 가치를 하락(달러 평가절하)시키게 되며 비(非)달러의 가치(예를 들어 원화)를 상승(원화 평가절상)시키게 된다.

장기 환율가격결정 모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구매력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이론이 있다. PPP이론은 장기적으로 실질환율이 1이어야만 양국 간의 가격이 동일해져서 무역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명목환율은 양국 간 물가의 비율(국내물가 ÷ 해외물가)로 정의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초기에 양적완화 등을 통해 자국의 통화공급이 확대되면 단기적으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통화공급의 확대가 자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시켜 제품의 비용도 상승하게 된다. 결국 자국화폐의 평가절하율과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동일하게 되어 실질환율은 장기적으로 1이 된다는 것을 PPP이론은 보여주고 있다.

## 국가 간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실질환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환율은 국제 제품가격경쟁력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명목환율의 변동이 실질환율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및 일본의 아베노믹스(2년 내 통화량을 2배로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2배로 상승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환율경로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로이다.

즉, 양적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자국 통화공급의 확대를 통해 자국의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자국통화 평가절하) 타국의 화폐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자국 실질통화의 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 확대를 암묵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달러가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외환위기(currency crisis)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다른 나라 대비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부채가 매우 높다고는 하나 국가부채의 대부분을 자국의 은행들이 매입하는 상황에서 국가부도 위험 또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양적완화를 시행한다면 2014년 6월 말 현재 약 3,666억 달러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금리인하 혹은 양적완화 정책은 국내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증가로 경상수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인한 해외투자자들의 자금회수로 급격한 자본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에 겪었던 IMF 금융위기처럼 경상수지 측면보다는 급격한 자본이동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급격한 국가위기 때 정부의 부채를 국내 금융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이러한 국가부채를 매입할 여력은 매우 작아 보인다.

### 한국정부의 고민

PPP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과 일본 등에서의 양적완화 정책들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해외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2012년 3월 이후부터 2014년 5월까지의 27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강세를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급진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논의를 보면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고 수입을 증가시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킴으로써 원화의 급격한 강세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7월 현재 14개월 연속 2.5%에서 정책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는 원화의 강세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이 2014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4.0%에서 3.8%로 하향조정 한 것에서 보듯이 정부는 향후 완만한 정책금리 인하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 원화의 급격한 절상 방지 등을 유도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김원중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lick 경제교육』 2014년 8월호

중등 5차시

# 가발 수출국에서 반도체 수출국으로!



## □ 학습목표

- 글로벌 시장에서 시대별 우리나라의 수출품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해 왔음을 이해한다.
-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과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경제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 □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멀티미디어 환경(컴퓨터, 빔프로젝터/모니터, 스피커)  
동영상 자료, 강의용 PPT 자료

## □ 수업내용 구성

주요개념	무역 규모, 교역액, 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외환위기 등		
교육단계	지도 방식	지도 내용	유의점 · 준비물
도입 (5분)	선생님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무역이 성장해 온 과정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용 PPT]</li> </ul>
전개 (35분)	활동 1 선생님 강의 문제 풀이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상품 변화와 경제성장 관계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집약적 상품과 자본집약적 상품 구분</li> <li>- 고부가가치 상품과 경제 성장의 관계 학습</li> <li>- 향후 우리나라 인기 수출품 예상</li> <li>- 학생용 활동지 작성 및 발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5-1]</li> <li>• [강의용 PPT]</li> </ul>
	활동 2 선생님 강의 동영상 시청 활동지 풀이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위기 발생 원인과 영향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 외환위기 발생 원인 이해</li> <li>- 기업 부도와 대량 실업자 발생 과정 이해</li> <li>-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활동 이해</li> <li>- 사례를 토대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한 노력 생각하기</li> <li>- 학생용 활동지 작성 및 동영상 시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5-2]</li> <li>• [강의용 PPT]</li> <li>• [동영상 자료]</li> </ul>
정리 (5분)	강의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생각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활동지 5-3]</li> </ul>

##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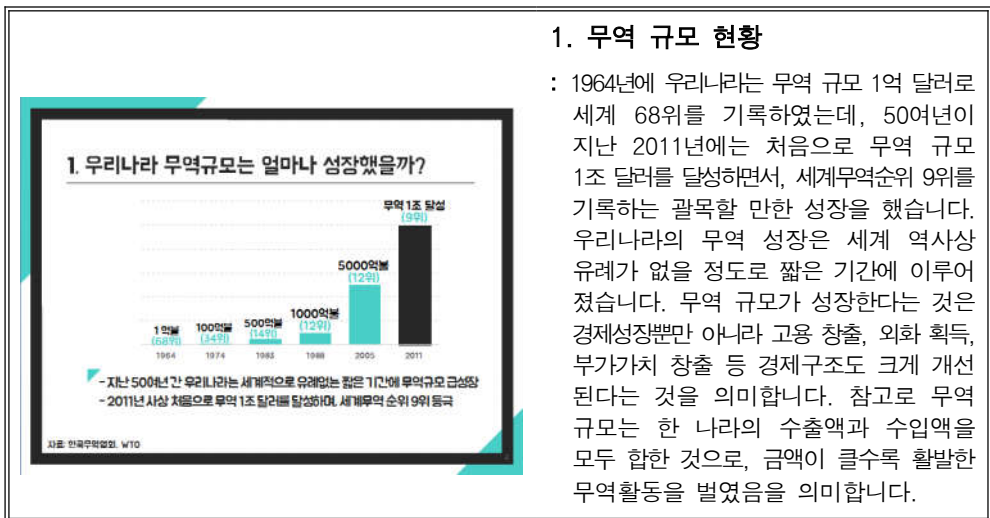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 준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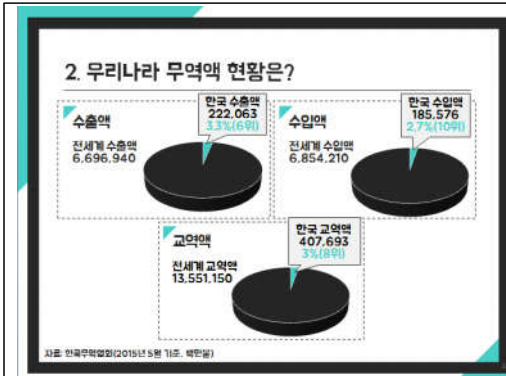
- [도입]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1: [강의용 PPT]
  - 멀티미디어 환경 구축
- 멀티미디어 활용이 어려운 경우 강의 자료를 출력해 활용합니다.

## 수업 진행하기

- 1) [도입]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를 학습합니다.
- 2) 강의 자료는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 현황, 무역액 현황, 1인당 수출액, 수출 상대국 변화, 주요 수출품의 시대별 변화 등에 대한 간단한 통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인 '주요 수출품의 시대별 변화' 내용은 [활동 1]의 강의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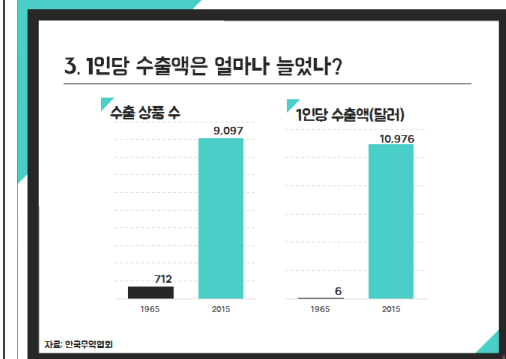


- 무역규모 현황을 소개한 후 학생들에게 부가가치의 의미에 대해 물어본 후 답변을 해주세요.
  - 부가가치란 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 생산물에 새로이 첨가한 가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는 노동의 인건비, 자본의 이자, 기업의 이윤의 합계임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2. 무역액 현황

: 2015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 세계 수출액(100%)중 3.3%를 차지하며 세계 6위를, 수입액은 전 세계 수입액 중 2.7%를 차지하며 세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15년 우리나라 무역액은 전 세계 무역액의 3% 비중으로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액의 상위 랭크 진입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1인당 수출액

: 수출 규모를 보면, 수출 상품수가 1965년 712개에서 2015년 9,097개로 늘어났으며, 1인당 수출액은 6달러에서 무려 10,976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무역업체수도 1965년 708개에서 2015년에는 138,197개로 늘어났습니다. 1인당 수출액 증가와 더불어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우리나라 수출 상대국의 변화

	1961년	1980년	2000년	2015년
1위	일본	미국	미국	중국
2위	홍콩	일본	일본	미국
3위	미국	사우디	중국	홍콩
4위	영국	독일	홍콩	베트남
5위	독일	홍콩	대만	일본

자료: 한국무역협회

## 4. 수출상대국 변화

: 우리나라 수출상대국 시대별 추이를 보면 1961년에는 일본이 1위였으며, 1980년대 부터 2000년대까지는 미국이, 2015년에 와서는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6%를 차지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 5.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은?

▶ 3대 수출국: 중국, 미국, 홍콩

▶ 3대 수입국: 미국, 중국, 일본

▶ 3대 흑자국: 미국, 중국, 홍콩

▶ 3대 적자국: 독일, 카타르, 일본

### 5. 무역상대국 현황

: 최근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홍콩이며, 수입국은 미국, 중국, 일본입니다. 다음으로 무역 흑자국은 미국, 중국, 홍콩으로 수출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역 적자국은 독일, 카타르, 일본입니다.

- 학생들에게 무역 흑자국과 무역 적자국의 의미를 아는지 질문합니다.
  - 무역 흑자국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상대 국가를 말합니다.
  - 무역 적자국은 우리나라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상대 국가를 말합니다.
- 무역 적자국에 카타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합니다.
  - 우리나라는 카타르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천연자원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일본에서는 반도체와 기타부품소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 6.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상품?

5대 수출품		5대 수입품	
반도체	석유제품	원유	반도체
자동차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천연가스	천연가스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석유제품	석유제품
		석탄	석탄

자료: 한국무역협회(2014년 기준)

### 6. 수출입 품목 현황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등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수입품으로는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등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카타르가 무역 적자국으로 올라 있는 것처럼 천연자원에 대한 수입이 높다고 설명해 주십시오. 특이하게 반도체와 석유제품은 수출품과 수입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주십시오.

### 7. 주요 수출품목의 시대별 변화?

	1961년	1980년	2000년	2015년
1	실경석	아연	반도체	반도체
2	종이	철강판	자동차	자동차
3	생사	신강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	양면판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5	오징어	철강기기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석유제품
6	철선어	원조정성유제품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	박연	고무제품	연상수지	자동차부품

- 1차 상품에서 IT제품 등 첨단제품 중심으로 수출품목 고도화
- IT제품, 중화학제품은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수출시장 선도

자료: 한국무역협회

### 7. 주요 수출품목의 시대별 변화

: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수출품목 변화 추이를 보면, 1961년에 어업, 자원 등 주로 1차 상품에서, 2015년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제품 중심으로 수출품목이 고도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IT제품, 중화학제품 등은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에서 철강(3위), 반도체(4위), 통신장비(4위), 자동차(5위), 텔레비전(9위) 등의 제품이 상위에 랭크되어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전개] 활동 1

# 가발에서 반도체로!

## 준비하기

- [전개] 활동 1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1: [강의용 PPT 1] 중 '7. 주요 수출품의 시대별 변화' 페이지
  - 자료2: [학생용 활동지 5-1] × 학생수
  - 멀티미디어 환경 구축
- [도입] 단계와 시간 구분 없이 이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 수업 진행하기

- 1) [강의용 PPT 1]의 '7. 주요 수출품의 시대별 변화' 페이지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7. 주요 수출품목의 시대별 변화는?

	1961년	1980년	2000년	2015년
1	삼각식	의류	반도체	반도체
2	종식	철강판	컴퓨터	자동차
3	선사	선박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	무연탄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5	오징어	음양기기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석유제품
6	합성어	인조장상유직물	무선통신기기	광디스크레이터및센서
7	복합	고무제품	인상수지	자동차부품

▶ 1차 상품에서 IT제품 등 첨단제품 중심으로 수출품목 고도화  
▶ IT제품, 중화학제품은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수출시장 선도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우리나라 수출품의 시대별 변화 추이 자료를 보면서 60~80년대에 우리나라 수출품은 노동집약적 상품들이 대다수였으며, 9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상품과 자본집약적 상품들이 혼합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본집약적 상품이 주요 수출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 노동집약적 상품과 자본집약적 상품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해 봅니다.

### 선생님 잠깐만!

- **노동집약적 산업:** 생산요소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주로 노동력에 의존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비해 장비의 화폐적 크기가 작고 기술·생산력 수준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사용한다. 흔히 섬유·신발·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공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 **자본집약적 산업:** 노동력 또는 생산량에 비하여 대량의 자본설비를 사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산업의 자본집약도는, 자본량/노동량 또는 자본량/산출량의 비율로 측정된다. 석유, 제1차 금속, 화학 산업 등이다.
- **무역 구조의 고도화:** 수출 상품이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자본집약적 상품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품목의 고도화, 부가가치의 고도화라고도 한다.

-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는 무역 구조의 고도화 과정을 겪으면서 수출품이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자본집약적 상품으로 수출 품목이 변화되어 왔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또한 무역 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 노동집약적 상품과 자본집약적 상품의 의미를 설명한 후, 다시 학생들에게 2차 질문을 통해 의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줍니다.
  - 석유제품과 전자제품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제품이 노동집약적 상품인지, 자본집약적 상품인지 질문해 봅니다.
    - 전자제품은 조립하는 과정의 비중이 높아 기술과 자본보다는 풍부한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상품입니다. 반면, 석유제품은 석유를 정유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을 말하며, 석유를 정제하는데 있어 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글로벌 시장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중간재 형태로 해외 부가가치를 수입,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산업구조라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디자인, 첨단기술 부품 및 소재 등 핵심 역량 부분이 잘 발달해 있고 중간재 수입 비중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출을 통해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출의 부가가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출의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했음을 알려 주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 3) 강제가 마무리되면 학생들에게 [학생용 활동지 5-1]을 나누어 주고 ‘우리나라 수출상품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 학생들에게 [학생용 활동지 5-1]의 퍼즐 속에서 노동집약적 상품(품목) 5가지와 자본집약적 상품(품목) 5가지를 찾도록 하고, 질문에 답변을 적도록 합니다.
  - 활동이 끝나면 여러 학생들에게 학생용 활동지에 무엇을 기록했는지 질문해 봅니다.
    -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자본집약적 상품으로 수출품이 변화한다는 것은 부가가치 (인건비, 이자, 이윤 등의 합계) 비중이 높은 상품으로 변해감으로써 수출시장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 4) [학생용 활동지 5-1]중 2번 문항은 활동 시간 상황에 따라 선택해 실시하시면 됩니다.
- 최근 무역 트렌드를 보면 IT제품, 중화학 제품 등이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 상품의 영역이 제조업 제품 위주에서 소비재, 문화콘텐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또한,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문화콘텐츠, 패션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 최근 무역 트렌드 소개가 마무리되면 학생들에게 향후 우리나라의 인기 수출품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학생용 활동지에 기록하도록 합니다.(시간 3분)

**자료2: [학생용 활동지 5-1] 우리나라 수출상품 이해하기**

( )학년 ( )반 이름( )

**1. 우리나라 수출 상품(품목) 퍼즐 맞추기**

- 아래 표에서 주어진 단어를 찾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수출품(품목) 5가지와 자본이 많이 필요한 수출품(품목) 5가지를 분류해 적어보세요.

※ 찾을 단어: **의류, 신발, 자동차, 석유제품, 고무제품, 가발, 반도체, 전자제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중	무	상	기	선	자	터	컴	발	차
가	발	무	탄	활	동	향	통	수	평
미	어	철	흑	연	차	판	신	도	수
무	반	류	박	물	부	자	발	구	전
선	차	조	의	류	품	동	물	체	자
통	석	연	합	상	성	차	수	판	제
신	고	무	제	품	강	무	센	틱	품
기	품	사	반	도	체	의	발	유	동
기	해	구	물	통	기	유	부	인	의
조	지	동	제	기	석	유	제	품	영

- 1) 노동이 많이 필요한 수출품(품목) 5개  
: 의류, 신발, 고무제품, 가발, 전자제품
- 2) 자본이 많이 필요한 수출품(품목) 5개  
: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 3) 노동이 많이 필요한 수출품에서, 자본이 많이 필요한 수출품으로의 수출 상품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2. 향후 우리나라의 인기 수출품은 무엇이 될지 적어보세요?(복수 가능)**

- 인기 수출품 : 화장품, 휴대폰
- 해당 상품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 화장품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앞으로 더 수출이 늘어날 것 같다.

## 경제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하다

### 준비하기

- [전개] 활동 2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3: [강의용 PPT 2]
  - 자료4: [학생용 활동지 5-2] × 학생수
  - 자료5: [한스밴드 - 오락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xCpGsGFkVM>, 3분 34초)
  - 자료6: [그래, 아빠가 같이 놀아줄게] 동영상  
(<https://youtu.be/L96j0W9A6Jc>, 4분 19초)
  - 멀티미디어 환경 구축

### 수업 진행하기

- 1) 이번 활동은 1997년 우리나라가 겪은 IMF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과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학습합니다. 선생님은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 선생님 잠깐만!

- **외환위기** :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거나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하여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져 채무불이행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위기를 말한다.
- **외환보유액** :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 한 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의 총액으로, 적정량의 외화보유액은 국가신인도 결정 및 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 요소다.
- **국제통화기금(IMF)** : 1947년에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 기관의 하나로, 각국의 외화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각 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료3: [강의용 PPT 2]

#### 1. 외환위기는 언제 일어날까요?

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화폐인 미국 달러를 필요로 하는 양보다 보유하고 있는 양이 부족할 때, 즉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 2.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를 겪었나요?

1997년 11월, 우리나라도 미국 달러가 부족해 외국 빚을 갚지 못하자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외환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이걸을 'IMF 외환위기', 또는 'IMF 구제금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1. 외환위기는 언제 일어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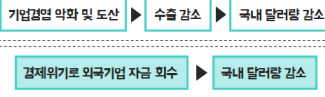
: 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화폐인 미국 달러를 필요로 하는 양보다 보유하고 있는 양이 부족할 때, 즉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거나, 수입품에 대해 결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국 달러가 부족해서 정해진 날짜에 빚을 갚을 수가 없다면 외환위기가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알려 줍니다.

#### 2.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겪었나요?

: 지난 1997년 11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미국 달러 부족으로 외국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달러를 조달받았음을 알려줍니다. 더불어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연합 기관으로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 3. 우리나라는 왜 달러가 부족했나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급하게 성장해 온 경제 발전 속에서 쌓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발생했습니다. 기업 경쟁력 하락, 수출 감소, 국민 과소비 등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 3. 우리나라는 왜 달러가 부족했나요?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급하게 성장해 온 경제 발전 속에서 쌓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발생했습니다. 기업 경쟁력 하락, 수출 감소, 국민 과소비 등의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 당시 국내기업들은 지나친 빚, 과다 고용 등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부실이 심화되었고 이것이 기업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자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어 무역 적자가 늘어났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수출 감소로 달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어려워지자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투자한 자금을 달러로 회수하여 자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국내에 달러 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음을 설명해 줍니다.

#### 4.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변했나요?

경제 사정 악화로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가계 소득이 감소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자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4.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변했나요?

: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가계 소득이 감소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자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남을 알려줍니다.

#### 5.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1) 정부의 노력

-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 실업자 증가로 줄어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예산 집행

##### 2) 국민의 노력

- 금모으기 운동, 국산품 소비하기 운동 등을 통한 외화 절약 운동

#### 5.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기업의 원만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으며,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확대 집행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은 금을 외국에 팔아 국내 금융 시장에 달러를 늘리려는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국산품 소비하기 운동, 에너지 절약운동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2001년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2) 강의 후 [학생용 활동지5-2]를 나누어 주고 IMF 외환위기 시대인 1998년에 발표된 한스밴드의 '오락실'이라는 노래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부도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아버지들은 갈 곳이 없자 오락실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노래 가사는 아버지의 실직 모습을 아이의 시각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 배경 설명이 끝나면 [한스밴드 - 오락실] 영상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빈칸에 해당되는 노래 가사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어진 질문을 작성토록 하고 토론해 봅니다.
- 활동이 마무리되면 [그래, 아빠가 같이 놀아줄게]를 감상하고 소감을 서로 공유해 봅니다.

#### 자료4: [학생용 활동지 5-2] IMF 경제위기 상황 이해

##### 오 락 실 -한스밴드-

시험을 망쳤어 오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아빠

장난이 아닌 걸 또 최고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돈타령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시험성적 아신 건 아닐까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엔 이시대의 (아빠)들이 많다는데  
혀끝을 짚듯 내차시는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아빠

늦은 밤중에 아빠의 (한숨소리) 옆엔 신나게 코골며 잠꼬대 하는 엄마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회사에 가기 싫으실까

아침은 오고 또 엄마의 (잔소리) 도시락은 아빠 거 내꺼 두 개  
아빠 조금 있다 또 거기서 만나요 오늘 누가 이기나 겨뤄봐요  
승부의 세계는 오 너무너무 냉정해 부녀간도 소용없는 오락 한판  
아빠 힘내요 난 아빠를 (믿어요) 아빠 곁엔 제가 있어요  
아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1. 아빠는 실직자가 되었음을 가족들에게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예) 가족이 걱정하는 모습이 싫어서 / 자기 때문에 가족이 우울해 질까봐 / 실직자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2.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었을까요?

예) 기업 경영을 잘해서 실업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외화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 /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한국 경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 준비하기

- [정리]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7: [학생용 활동지 5-3] × 모둠수 또는 학생수

### 수업 진행하기

- 1)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증대를 통해 엄청난 경제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 선생님은 [학생용 활동지 5-3]의 문제 중, 글로벌 시장에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합니다. 모둠별 혹은 개인별로 질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① 수출입이 일부 국가에만 치중되어 있으므로 수출입 국가를 늘려야 한다.
  - ②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므로, 자원 수출을 통해 이익을 늘려야 한다.
  - ③ 우리나라는 무역에 대한 의존이 낮으므로, 무역 의존도를 더 높여야 한다.
  - ④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품이 일부 물품으로 편중돼 있어 중국 등의 추격이 걱정된다.
  - ⑤ 글로벌 시장에서 각 나라가 자국을 보호할 무역정책을 시행할수록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 정답은 ①, ④입니다. ②, ③, ⑤은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 자료7: [학생용 활동지 5-3] 정리 문제

- ①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은 일부 국가에 치중되어 있어 수출입 국가에 경제 상황이 나쁘면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크므로, 가능한 수출입 국가를 넓혀야 합니다.
- ②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 ③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글로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 ④ 우리나라 수출품은 일부 제품의 비중이 너무 높은 편입니다. 현재 수출품의 노후화와 다른 나라의 추월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다양한 수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 ⑤ 글로벌 시장에서 각 나라가 보호무역을 시행할수록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불리합니다.

## 한국경제, 기적을 만들다

「기적 만들기(Making a Miracle)」,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한 논문에 붙인 제목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이 그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과 같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처럼 단시일에 후진국에서 선진국 수준까지 오른 사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빈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았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반세기 만에 세계 13위(2014년 국내총생산 기준)로 올라섰다.

### 피원조국 설움을 딛고 눈부신 성장

한국이 1955년 국제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가입할 때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5달러로, 아프리카의 가나·가봉보다 낮았다. 전란(戰亂)은 외국 원조에 의존해 가까스로 이겨냈다. 전후 복구를 위해 원조금을 지원하던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한국의 경제 관리 능력을 ‘밑 빠진 독’이라고 혹평했다.

밑 빠진 독으로 끝날 수는 없었다. 산업화의 첫걸음은 1962년 박정희 정부가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땀. 영화 ‘국제시장’ 속 덕수(광부)와 영자(간호사)들이 1963년부터 대거 독일로 가 외화를 벌었다. 이 외화는 경제 성장을 위한 종잣돈이 됐다.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성장 전략으로 잡은 정부는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출기업에 각종 특혜를 줬다. 건설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해 ‘중동 붐’을 일으켰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마지막 해인 1966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9%였다. 처음으로 연 성장률 두 자릿수 시대였다. 제2차 계획(1967~1971년) 때 연평균 성장률은 10.0%, 제3차 계획(1972~1976년) 때는 10.2%에 이르렀다. 수출 주도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늘도 생겼다.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그것이다. 삼성, 현대, LG, SK 등은 1960~1970년대 정부 지원에 힘입어 크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대외개방을 하고, 1990년대 이후엔 정보기술(IT)·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 한국경제는 계속해서 또 다른 활로를 찾았다. 조선·반도체·철강·자동차가 수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1996년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입성했다. 2009년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 공여국이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67달러에서 2014년 28,180달러로 증가했다. 국민총소득(GNI)은 1953년 483억 원에서 1,497조 원으로 3만 배 넘게 불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할 때 1억 달러가 안됐던 수출은 지난해 5,730억 달러로 컸다. 수출·수입을 합친 무역규모는 현재 세계 8위이다.

<그림> 통계로 본 광복 70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 ‘제2의 도약’ 어떻게 할까

실 새 없이 달리는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73년과 1978~1982년 터진 1·2차 오일쇼크는 석유 한방울 나지 않았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다. 1973년 3.2%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74년 24.3%로 뛰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위험과 맞섰다. 30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이 무너지고 은행도 문을 닫았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외채를 갚을 돈이 없던 정부는 IMF에 손을 벌렸다.

2003년엔 카드사태로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길거리 모집’을 통한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확장과 정부의 부실 감독이 빚은 일이었다. 2008년 미국 발(發)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출렁였지만,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대외건전성을 방패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광복 후 70년을 맞은 2015년 한국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로 다가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2060년이 되면 고령인구 비중이 40.1%가 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산율은 1.23명(2010~2014년 평균)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다. 그만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적어진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61년부터 50년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돈 것은 다섯 차례로 오일쇼크,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특수한 이유가 있었다. 그마저도 충격을 딛고 1~2년 안에 경제가 빠른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이렇다 할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작년(3.3%)을 제외하고는 계속 2%대의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한계점에 다다른 기존 산업의 성장, 비정규직·정규직으로 분화된 노동시장, 세대갈등, 청년실업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부 수장으로 경제정책을 이끈 강봉균 전 장관은 “한국은 과감한 개방 등 다른 개발도상국이 못하던 것들을 해내 선진국 문턱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며 “선진국들이 힘들어하는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초롱 연합뉴스 기자

『click 경제교육』 2015년 8월호

### IMF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일대사건이었다. 정리하고 등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어야 했지만 그로 인해 환골탈태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체질이 바뀌었다. 정부의 관치금융이 사라지고 기업들은 규모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 외국자본이 국내에 대거 진출하는 계기가 됐고 사외이사제 등 여러 가지 외국 제도가 도입됐다.

#### 외환위기 터지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뉘볼 수 있지만 단적으로 말한다면 경제개발기에 성공적이었던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관치금융, 재벌체제 등이 오히려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고 몸집을 불렸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규모가 너무 크면 정부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를 믿고 계열사들을 마구 늘렸다. 한보비리 사건에서 보듯이 정치권과 기업 간의 ‘정경유착’도 불합리적인 대출이나 투자를 부추겼다.

종합금융사들은 해외 자금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차입해, 기업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고 장기 시설투자 자금으로 대출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없을 때는 차환(Rollover, 대출연장)이 됐지만 위기 조짐이 보이자 외국 금융사들은 자금을 급히 회수하기 시작했다.

위기 조짐은 1997년 1월 한보철강이 최종 부도로 쓰러지면서부터 감지됐다. 3월부터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등 대기업 그룹들이 연쇄 부도가 났다. 7월에는 태국 바트화가, 8월에 인도네시아 루피화가 폭락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을 무리하게 달러당 800원대로 방어하려다 외환보유액을 허비했다. 11월에는 외환보유액이 20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1997년 12월3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IMF는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 고금리·고환율 정책으로 투자자금을 유치하라고 압박했다. 금리는 연 20%대로 뛰어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900원대로 상승했다. 고환율 정책은 수출 증대, 투자자금 유치 등을 위해 불가피했으나 고금리 정책은 수많은 기업들을 도산시켜 두고두고 ‘정책 실패였다’는 오명을 썼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금융·기업·공공·노동 부문 등에서 4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총 200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부실화된 은행에 투입했고 일부 은행과 종합금융사를 퇴출시켰다.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은행)로

대표되던 5대 시중은행들은 합병이나 해외 매각의 길을 걸었다. 기업들도 부채비율을 낮추고 인원을 해고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채권은행들의 관리 하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자산 매각,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다. 4대 그룹 중 하나였던 대우그룹도 해체돼 채권은행들이 관리했다. 공기업 개혁으로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통신(KT) 등이 민영화됐고 노동부문에서는 정리해고가 허용됐다.

## 환골탈태한 한국경제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2001년 8월에는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IMF 관리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더 이상 경제정책에 대해 IMF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됐다. IMF 구제 금융을 받은 나라 중 우리나라처럼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었다.

IMF 외환위기는 경제를 비롯해 우리나라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은행들은 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에 따른 관치금융으로부터 벗어나 독자 경영이 이뤄졌다. 금융‘기관’이라는 표현보다 금융‘회사’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게 됐다.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대폭 낮췄고 불필요한 투자나 무리한 확장을 삼갔다. 규모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효율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은 글로벌화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회 다른 분야에도 ‘기업식 경영’ 방식이 확산됐다.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에 따른 인사 평가와 성과 보상이 이뤄졌다. 잉여인력을 최소화하고 각 부문에서 효율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외국 자본의 유입과 글로벌스탠더드 도입으로 금융시장도 선진화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큰 차익을 거두고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을 싼 값에 사들여 국부 유출 논란도 빚어졌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이 투명해지고 펀드나 파생상품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상품과 제도가 도입됐다.

물론 IMF 위기가 우리나라에 긍정적 결과만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사회 각 분야가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됐다. 여러 차례 구조조정으로 해고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됐다.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으로만 몰려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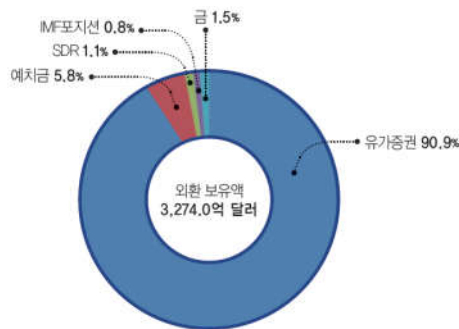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click 경제교육』 2010년 10월호

###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금고, 외환보유액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 사고 이후 국내 판매량이 뚝 떨어졌던 기저귀·화장품·의류·여행 등의 일본산 제품들이 최근 다시 인기제품이 됐다. 요즘 마트에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가의 유럽산 생활용품들이 앞다퉈 진열되어 있다. 이는 소위 환율전쟁이라 불리는 각국의 자국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달라진 우리 생활의 단면이다. 부존자원이 적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환율의 변동이 일상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우리는 환율변동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환율의 급격한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고를 두고 있다. 바로 외환보유액이다.

우리가 환율 안정의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다. 1997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89억 달러로 거의 바닥이 드러났다. 정부나 기업 등이 외국에서 빌린 외화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고, 우리 경제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2013년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274억 달러이고, 유가증권 2,974.7억 달러(90.9%), 예치금 189.6억 달러(5.8%), SDR 34.5억 달러(1.1%), 금 47.9억 달러(1.5%), IMF포지션 27.2억 달러(0.8%)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규모는 중국·일본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다(2013.1월 말 기준). 하지만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원화가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주: 유가증권은 국제,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등이고, SDR은 특별인출권으로 IMF가 맹국들끼리 약속한 일종의 준비통화, IMF포지션은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게 되는 교환성통화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외환보유액 현황(2013년 1월 기준)

(단위: 억 달러)

중국	일본	러시아	스위스	대만	브라질	한국	홍콩
33,116	12,673	5,322	5,318	4,066	3,734	3,289	3,210
(139)	(-8)	(-55)	(6)	(34)	(3)	(19)	(37)

주: ( ) 표시는 전월 말 대비 증감액, 중국은 2012년 12월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표> 2013년 1월 말 외환보유액 국제 비교

외환보유액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한다. 정부는 이 기금을 이용하여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계절적 또는 투기적인 외화 자금의 수요불균형을 조절하여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킨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가 많이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해 달러를 매입한다. 그 결과로 달러가 기금으로 들어가면서 원화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일명 외평채라고 한다. 외평채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고 한국은행이 발행한다. 시중에 달러가 부족해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여 달러를 확보하고, 달러가 많아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여 원화를 확보한다. 외평채가 거래될 때는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는데 이를 외평채 가산금리라고 한다. 우리나라 외평채는 미국 국채 금리에 가산금리가 덧붙는다. 예를 들어 외평채 가산금리가 올랐다면 채권 값과 국가신인도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click 경제교육』 2013년 4월호

<b>연구기획</b>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b>자문·감수</b>	박형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b>집필진</b>	김나영 서울 양정중학교 교사 서현원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팀 전문연구원 홍근태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b>파일럿 테스트</b>	오주희 아름중학교 교사
<b>문의</b>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044-550-4636 / shwon@kdi.re.kr